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구조와 GVC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trengthening Korea-China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After COVID-19
- Focusing on Trade Structure and GVC -

구 월 령

제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2024년 2월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구조와 GVC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trengthening Korea-China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After COVID-19
- Focusing on Trade Structure and GVC-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구 월 령

제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지도교수 박 진 우

구월령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심사위원장

許允碩



위 원

高制慶



위 원

朴眞友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한·중 경제무역의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가 한·중 경제무역 협력에 가져온 기회와 도전을 탐구한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래 중요한 무역 동반자로 발전했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변화된 세계 경제 및 정치 환경 속에서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 관계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세계 경제의 부진, 부채 부담 증가, 공급체인의 지정학적 위험 등의 배경 속에서 한·중 협력은 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양국은 세계 경제에서 각각 2위와 10위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의 번영과 안정,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한·중 수교부터 코로나19 발생 후까지의 경제무역 변화와 현황을 연구하고, 코로나19 이후 한·중 경제무역 협력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다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했다. 특히, 교역액이 1992년 50억 달러에서 2018년 2,700억 달러로 급증하며 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19의 발생은 세계 경제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GVC가 붕괴되며 한·중 무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은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중미 전략 게임의 영향, 그리고 대중 협력에 대한 한국 내의 부정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중 양국은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의 '이중순환' 전략은 국내외 경제활동의 균형을 목표로 하며, 이는 한·중 경제무역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력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의 증가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이후는 한·중 양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양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고, 산업 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촉진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교역의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와 같

은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경제무역의 상호 보완성과 시너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중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핵심어: 한·중 경제무역 협력, 코로나19, 비대면 경제, 무역구조, GVC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3. 논문의 구성	4
II. 이론적 고찰 및 현황	6
1.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변화	6
2. 경제무역 협력의 이론적 고찰	7
1) 경제무역 협력의 개념	7
2)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이론적 틀	8
3) 한·중 경제무역 협력 현황	13
3. 무역구조와 GVC의 이론적 고찰	18
1) 무역구조의 개념	18
2) GVC의 개념	20
3) 무역구조와 GVC의 상호작용	20
4. 선행연구의 고찰 및 평가	23
1) 경제무역 협력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23
2) 무역구조와 GVC에 관한 선행연구	28
III.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무역구조 변화	34
1.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	34

1)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	34
2) 비대면 경제의 부상과 영향	36
2.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39
1) 한·중 경제무역 협력 과정	39
2) 한·중 무역구조의 특징	42
3) 한·중 대외경제무역 현황	45
3. 코로나19 전후 한·중 무역구조의 변화	50
1) 교역량의 변화	50
2) 투자 동반자 관계의 변화	51
3) 한·중 가치사슬의 변화	52
4) 무역정책 및 규제의 변화	53
4. 한·중 무역구조의 새로운 동향	56
IV. 한·중 GVC의 재편	66
1. GVC의 변화	62
2. 한·중 GVC 협력 현황과 전망	62
1) 코로나19 이전의 한·중 가치사슬 현황	62
2)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가치사슬의 변화	64
3. 한·중 GVC 협력의 도전과 기회	69
1) 도전요인의 등장	69
2) 기회의 탐색	73
4.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 협력 전략	79
V.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방안	82
1.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82
2. 무역 장벽 해소와 시장 접근성 개선	83
3.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협력의 강화	84
4. 장기적 협력 프로세스 마련	86

VI. 결론	91
참고문헌	94
ABSTRACT	98

<표 목차>

<표2-1> 주요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이론	12
<표2-2> 한·중 교역규모 추세	14
<표2-3> 중국 의료 기기 무역 현황	15
<표2-4> 한·중 투자 현황	16
<표2-5>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	27
<표2-6> 무역구조와 GVC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	32
<표3-1> 한·중 경제 관계의 시기별 특징	43
<표3-2>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특징	44
<표3-3> 코로나19 전후 한·중 무역구조의 변화	57
<표3-4> 한국의 수출 품목 비중	58
<표3-5> 중국의 수출 품목 비중	58
<표4-1> 코로나19로 전·후 한국의 국민총소득 변화	66
<표4-2> 코로나19로 전·후 한국의 수출입 변화	67

<그림 목차>

<그림3-1> 2022년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51
<그림4-1> 국내 총생산 증가율	66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경제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무역 및 산업 협력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중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재평가와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은 지역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규모는 수교 이후 급증하여 2022년에는 3,240억 달러로 수교 당시의 50억 달러에서 약 66배 급증하였다.¹⁾ 이는 한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두 국가 간 협력의 가치를 보여준다. 즉, 양국이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한편, 코로나19는 세계 경제 및 정치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한·중 경제무역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발전, 부채 부담의 증가,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지정학적 위험 등은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두 나라 간의 경제무역 협력은 아시아 지역과 세계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엔진으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연구는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현재 상태와 잠재적인 기회 및 도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중 양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밝히고, 향후 양국이 협력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 탐색할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현황과 과제", 2023.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국내외 학자들이 한·중 경제무역에 관해 수행한 연구에 대한 보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양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경제 협력의 과제와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전후 무역구조와 GVC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무역 역학과 GVC 내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조사하고, 코로나19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대응을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은 코로나19 시대에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장벽과 잠재적 영역을 파악하는 동시에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의 글로벌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중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이 어떻게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깊은 이해를 시도한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특히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한·중 경제·무역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경제·무역 분석을 뛰어넘어 미국의 영향력, 국내 정치변화 등 지정학적 요인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을 통합하여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및 무역 협력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한·중 경제 및 무역 관계의 긴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의 차별성과 시대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며, 코로나19 이후의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 목적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내용적으로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연구의 깊이와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현상의 명확한 파악을 위해 코로나19 발생 전 상황과의 비교연구도 진행한다. 공간적 범위는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과 경쟁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삼고, 더 명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 각국의 주요 경제동반자인 미국 및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한·중 관계와 비교한다.

내용적 범위는 경제무역의 협력적 경쟁 관계 분석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무역구조와 GVC의 관점에서 한·중 경제적 협력 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양국의 경제적 협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한·중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과 경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한·중 양국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미국 및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를 통해 한·중 경제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중 양국 간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문헌 분석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세계 경제 발전과 한·중 경제무역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 자료들은 한국과 중국, 및 해외 학위논문, 학술논문, 경제 및 무역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 통계 자료, 신문 자료 등을 포함한다. 이 자료들을 읽고 정리하며

비교 분석을 통해 논문의 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이론 분석법을 사용한다. 이론 분석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이론적 틀이나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기존 이론을 적용,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방법을 통해, 국제 무역, 국제 투자, 지역 통합의 이론을 활용해서 한·중 양국의 무역, 투자, 산업 협력의 과정과 현황, 그리고 존재하는 문제들을 분석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세계 경제 및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서 한·중 양국의 경제 및 무역에 나타나는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미래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한다.

셋째, 비교 분석법을 활용한다. 비교 분석법은 두 개 이상의 대상이나 사례를 비교하며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접근 방식은 대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더 명확한 이해와 해석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방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상황과 각국 정부의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한·중 경제무역 환경 및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경제무역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에 한·중 경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먼저 이 연구를 시작하는 배경과 연구를 시작하는 배경과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논문의 주된 연구 목적과 목표를 간략하게 서술하며, 이 연구가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접근법을 제공하는지 강조한다.

제2장은 이론적 고찰 및 현황 검토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변화, 무역구조와 GVC 이론,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이론적 틀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관련 연구를 리뷰하고 평가하여, 연구의 차별성 및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3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무역구조 변화를 설명한다.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코로나19 이후 무역구조 변화의 영향, 그리고 한·중

무역 관계의 새로운 동향을 고찰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한·중 경제무역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제4장은 GVC 재편과 한·중 협력 전망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한·중 경제무역 협력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 협력 전략을 제안한다.

제5장은 한·중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무역 장벽 해소, 시장 접근성 개선,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협력의 강화, 그리고 양국 간 협력의 장기적 전략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6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주요 발견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제안을 논의한다. 또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해 설명한다.

II. 이론적 고찰 및 현황

본 장에서는 경제 및 무역 협력의 개념과 연구를 검토하고, 무역구조, GVC, 그리고 비대면 경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세계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기본적인면서도,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1.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변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집중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국가별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자가격리(self-isolation) 조치 등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다양한 전염병 대응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경제활동의 위축은 세계 경제생산의 급격한 감소, 무역 및 투자 활동의 둔화, 글로벌 공급체인 제한으로 이어져 경제체계가 큰 압박을 받았다. 정부의 전염병 억제 조치에서 많은 국가가 수출입 사업을 제한하기 시작하여 다른 국가와의 경제적 연결을 줄이고 무역을 전면적으로 둔화시켰다. 또한 글로벌 공급체인도 어려움에 직면하여, 이에 따라 세계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무역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이 생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국제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제상황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국가 간 정치·경제분쟁으로까지 변질 수 있다. IMF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세계 경제가 4.4%로 줄어들어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최악이라고 설명하였다. 2020년에 성장하는 중요한 국가는 중국으로 2.0%에 달할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GDP 대비 글로벌 부채는 2019년 4분기 245%에서 2021년 1분기 280%로 코로나19 이후 35% 급증하였다. 정부 부채는 17%, 가계 부채는 6%, 기업 부채는 12%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 통화정책이 정상화돼 글로벌 금리가 오르

면 부채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투자과 자본 흐름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각국 정부는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를 제한하였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큰 충격을 받았고 다양한 산업의 생산과 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시장과 소비자 행동의 변화도 압력에 불을 붙였다.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돈을 쓰기를 꺼려 소비자 시장과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였다. 코로나19도 금융시장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금융업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빠졌다. 그 영향은 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다양한 조직으로 빠르게 퍼졌다. 경제가 저속하게 움직이거나 경기침체에 접어들면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염병이 발생한 후,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금융 시스템의 충격을 완화하였다.

2. 경제무역 협력의 이론적 고찰

1) 경제무역 협력의 개념

경제무역 협력은 국가들이 상품, 서비스, 기술, 지식 등을 교환하는 조직적인 과정으로, 상호 경제적 이익 증대와 성장을 추구한다. 국가 간 경제 및 무역 협력은 다면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국가가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 촉진, 관세 인하, 투자 증진, 기술 및 전문 지식 공유를 목표로 하는 협정이나 조약의 형태로 나타난다.²⁾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무역 흐름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춘 양자 협정부터 회원국 간 공통 경제 정책 및 표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더 포괄적인 다자 협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³⁾

경제무역 협력의 핵심 요소는 관세, 할당량 및 기타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여 더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제 시장을 창출하려는 무역 자유화(free trade)

2)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7111&cid=42140&categoryId=42140>)

3) Baldwin, Richard E.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Global Trade. Routledge, 2017. pp.469~536.

이다.⁴⁾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서, 경제 통합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외부 무역정책을 유지하면서 그들 사이의 자유 무역에 동의하는 자유 무역 지역에서부터 국가들이 경제정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화시키는 경제연합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측면이다.⁵⁾ 경제 및 무역 협력으로 인해 생산 프로세스가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특정 생산 단계를 전문화하고 효율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GVC가 개발되었다.⁶⁾ 이러한 협력은 흔히 무역 및 투자 증가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외교 관계 강화, 지역 안정 강화,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균형 조정과 같은 정치적 목표도 추구한다.⁷⁾ 그러나 이러한 협력에는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영향, 환경적 고려, 국가 경제정책의 주권 등에 대한 우려 등 도전과 비판이 수반되며, 이러한 협약의 혜택이 항상 모든 참여국에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⁸⁾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지역 그룹 등 국제기구는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촉진하고 규제하며 협상,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국제 무역 표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⁹⁾ 전반적으로 경제 및 무역 협력은 세계화된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상호 작용하고 무역을 수행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2)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이론적 틀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이론적 토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Adam Smith)는 절대 비용 연구 이론(Theory of Absolute Advantage)에서 절대 우위에 대한 이론적 견해를

4) Baier, Scott L and Jeffrey H. Bergstrand, "Do free trade agreements actually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1.1, 2007, pp.72~95.

5) Melitz, Marc J.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econometrica* 71.6, 2003, pp.1695~1725.

6) Gereffi, Gary. "The organization of buyer-driven global commodity chains: How US retailers shape overseas production network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1994, pp.95~122.

7) Rodrik, Dani. "Why do more open economies have bigger governme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5, 1998, pp.997~1032.

8) Stiglitz, Joseph, and Robert M. Pike.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9.2, 2004, pp.321.

9)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orld Trade Report 2021", 2021.

제시했다. 스미스는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재산 이론을 기점으로, 국가의 모든 경제 주체가 자신의 특성에 따라 분업한다는 것을 발견했다.¹⁰⁾ 그는 다양한 국가에서 전문화된 제조를 구현하기 위해 우수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제품의 수량과 종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둘째, 고전 정치경제학의 중심인물인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는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 이론을 발전시켜 상대적인 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한 비교우위 이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을 제시했다. 여러 국가 간에 자유로운 제품 교환을 통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어, 국가 간 무역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리카도에 따르면, 특정 제품의 생산조건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함으로써, 무역이 가능하다.¹¹⁾ 이러한 방식으로, 각 국가는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인 상품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는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되고, 결국 이는 전체적인 경제효율성과 복지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것이 리카르도의 비교우위 원칙의 핵심이다.

셋째, 헉셔-오린 모델(Heckscher-Ohlin Theory)은 국가가 풍부하고 저렴한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상품을 수출하고, 부족한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상품을 수입한다고 제안한다. 이 이론은 국가의 구체적인 자원을 고려하여 무역 역학을 결정하는 비교우위 개념을 확장한다.¹²⁾ 이는 스웨덴의 경제학자 엘리 헉셔(Eli Heckscher)와 베르틸 오린(Bertil Ohlin)에 의해 개발된 경제 이론으로, 국가 간 무역 패턴을 설명한다. 이 모델은 각 국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를 바탕으로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산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상품을 수입한다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반면,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10) 유평, “한·중 경제무역 협력과 자유무역지구의 연구”, 2016, pp.11.

11) Seretis, Stergios A. and Persefoni V. Tsiliki. “Absolute advantage and international trade: Evidence from four Euro-zone economie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48, 2016, pp.440.

12) Negishi, Takashi, and Takashi Negishi. "Heckscher-Ohlin Theory (1). "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Trade Theory, 2001, pp.118~119.

수출한다. 이렇게 각 국가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 요소에 기반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되며, 이는 무역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경제적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이 모델은 무역의 혜택이 단지 기술적 효율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원의 분배와 국가의 자원 구성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무역이 각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넷째, 스톨퍼-사무엘슨 정리(The Stolper-Samuelson theorem)는 국제 무역 이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헉셔-오린 모델에서 파생된 개념이다.¹³⁾ 무역 자유화는 국가의 풍부한 생산 요소에 이익을 주고 부족한 요소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는 이 정리는 국제 무역이 각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노동이 풍부한 국가에서 무역은 임금을 증가시키지만, 자본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자본 수익을 증가시킨다. 구체적으로, 무역 자유화가 한 나라의 풍부한 생산 요소에는 이익을 주고, 반대로 부족한 생산 요소에는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노동력이 풍부하다면, 국제 무역을 통해 그 나라의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무역이 자본 수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무역이 각 국가의 경제구조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무역정책을 결정할 때 각 국가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리는 국제 무역이 각국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신 무역 이론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전통적인 무역 이론들이 주로 자원의 가용성이나 생산 요소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크루그먼의 이론은 이러한 관점에 도전한다.¹⁴⁾ 대신,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의 역할을 강조한다. 무역이 시장 규모를 증가시켜 더 많은 전문화, 다양한 상품의 제공 및 혁신 가능성을 제시한다. 크루그먼은 무역이 단순히 자원의 분배나 요소 자산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제 무역이 시장 규모를 확대시킴으로

13) Huang, Xianhai, Sheng Xu, and Jing Lu. "Trade Liberalisation and Labour Income Share Variation: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eviation from the Stolper-Samuelson Theorem." *The World Economy* 34.7, 2011, pp.1073~1074.

14) 김형진, "국제경쟁력의 문제 " 무역법률 16, 1997, pp.167~168.

써 전문화를 촉진하고,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루그먼의 이론에 따르면, 큰 시장에서는 생산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상품의 다양성과 혁신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전통적인 무역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 현대의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 경제에서 무역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여섯째, 중력 모델(the gravity model of international trade)은 양국 간의 무역 흐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얀 틴버겐 (Jan Tinbergen)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두 나라 간의 무역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그들 사이의 지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경제 규모는 주로 국내 총생산 (GDP)으로 측정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더 큰 경제를 가진 국가들은 더 많은 무역을 생성하며, 서로 가까이 위치한 국가들은 더 많이 무역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무역이 단순히 물리적 거리에 의해서만 아니라, 경제적 규모와 복잡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력 모델은 국제 무역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무역정책을 형성하거나 세계 경제 관계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 모델은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경제적 규모와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들이 그들의 무역 동반자를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즉, 세계 경제가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관적인 조건을 제거하고, 각 국가가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여 최적화된 세계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¹⁵⁾ 이는 경제 세계화가 단순히 국제 무역과 투자의 증가를 넘어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구조의 효율적인 재구성 과 조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무역 협력의 이론적 토대는 여러 경제학자들의 기여로 발전해 왔으며, 이는 현대의 국제 무역과 경제 협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상의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을 규명하는 설명을 제공한 이론을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15) Tinbergen, Jan. "Shaping the world economy: suggestions for a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1962, pp.2.

<표2-1> 주요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이론

이론	주요 개념
절대 우위 이론 (Adam Smith)	국가는 자신의 특성에 따라 분업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절대 우위를 가진 국가는 해당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노동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제품 수량과 종류를 늘릴 수 있다.
비교우위 이론 (David Ricardo)	특정 제품의 생산조건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함으로써 무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모든 국가는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경제효율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헤셔-오린 이론	국가는 풍부하고 저렴한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상품을 수출하고, 부족한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상품을 수입한다. 이는 각 국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에 기반하여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적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무역 자유화는 국가의 풍부한 생산 요소에 이익을 주고 부족한 요소에 손해를 입힌다. 국제 무역은 각국의 경제에 다른 영향을 미치며, 무역정책 결정 시 각 국가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 무역 이론 (Paul Krugman)	전통적인 무역 이론에 도전하여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의 역할을 강조한다. 무역은 시장 규모를 증가시켜 더 많은 전문화, 다양한 상품의 제공 및 혁신 가능성을 제시한다. 크루그먼은 국제 무역이 경제적 규모와 복잡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중력 모델 (Jan Tinbergen)	양국 간의 무역 흐름은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지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 경제 규모는 주로 GDP로 측정되며, 더 큰 경제를 가진 국가들은 더 많은 무역을 생성하고, 서로 가까이 위치한 국가들은 더 많이 무역한다. 이 모델은 국제 무역의 패턴 이해에 중요한 도구이다.

자료: 연구자 정리

이상에서 설명한 경제무역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이론은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자원과 세계 경제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이해하는 데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국제경제무역 관계의 중요한 사례연구인 한·중 경제무역 협력은 비교우위이론과 중력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 이론적, 실무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 이론을 통해 이번 협력은 한국과 중국이 전자, 자동차 등 첨단 기술 혁신 산업 분야에서 한국, 대규모 제조 및 조립 분야에서 중국 등 각자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여 경제성 장을 촉진하는지 보여준다. Jan Tinbergen이 제안한 중력 모델은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여 두 국가 간의 상당한 무역 관계가 상당한 경제적 규모와 지리적 근접성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자 협력은 진화하는 글로벌 권력 균형과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 통합의 역동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노동 분업과 현대 경제에서 GVC의 역할을 반영한다. 또한, 한·중 경제동반자 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실천적 사례로서, 코로나19 이후 보호주의 정책이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정치·경제정책이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 관계의 회복력과 적응성을 검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외교 및 경제 전략의 효율성과 경제 성장 촉진에 있어서 양자 협정 및 지역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는 이 동반자 관계는 특히 디지털 경제와 녹색 전환 영역에서 경제 목표를 글로벌 환경 및 기술 발전과 일치시키는 선례가 되었다. 따라서 한·중 경제무역 협력은 국가 이익과 균형을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며, 국제 관계 및 세계 경제 거버넌스 분야의 학자 및 정책 입안자들에 필수적인 주제가 된다.

3) 한·중 경제무역 협력 현황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은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첫째, 1992년 당시 50억3,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중 교역액은 2022년 약 3,240억 달러로 증가해, 약 66배나 성장했다. 무역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다. 수교

당시 64억 달러였던 무역 규모가 2020년에는 약 2,415억 달러로 약 38배 증가했다. 이는 양국 경제가 서로에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4.0%에서 24.6%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한국에 있어서도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¹⁶⁾

둘째, 양국 간의 무역 의존도도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의 4.0%에서 2020년에는 24.6%로 많이 늘어났다. 한국이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의 4.2%에서 2020년에는 6.1%로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높아져 2021년 9월 누적 기준으로 한국 수출의 약 56.1%를 차지하는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등 6개 품목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평균 30.8%에 달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는 양국 무역이 활발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B2C 및 B2B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며 비대면 거래를 촉진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위기를 동시에 막는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표2-2> 한·중 교역규모 추세

(단위:억 달러)

연도	1992	2001	2006	2015	2018	2019	2020	2021
총액	64	315	1,180	2,274	2,686	2,434	2,415	3,015
수출	27	182	694	1,371	1,621	1,362	1,326	1,629
수입	37	133	485	903	1,065	1,072	1,089	1,386
수지	-10	49	209	468	556	289	237	243

출처: 중국통계국(2022)

셋째, 양국 무역에서 의료 제품 및 의료 장비의 무역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렴 등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의료 기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국과 한국의 의료 기기 수출입 무역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2020년 중국에 대한 의료 기기 무역 총액은 29억 7,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0.8% 증가했으며 그

16)中國社會科學院亞太與全球戰略研究院. “中國與韓國經貿關係發展報告.” 2022.

중 수출은 19억 9,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1.18% 증가했으며 수입은 9억 8,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0.5% 증가하였다.

의료기기 부문의 이러한 급증은 보건 비상사태가 무역 우선순위와 시장 수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이다. 팬데믹 이전에는 무역이 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무역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양국 간 의료기기 수출입의 급속한 성장은 의료 및 의료 기술이 국제 무역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료제품 및 장비의 교역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2-3> 중국 의료 기기 무역 현황

(단위:억 달러)

연도	2018	2019	2020	2021
총액	12.8	15.8	29.7	30.1
수출	7.2	9.1	19.9	17
수입	5.6	6.7	9.8	13.1

출처: 중국통계국(2022)

투자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한·중 수교 후 한국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여 1992년 2억 달러에서 2007년 7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성장률 둔화로 인해 2012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40억 달러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7억 달러에 그치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수교 초기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는 1992년 105만 달러에서 2020년 20억 달러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표2-4> 한·중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중국의 대한 투자			한국의 대중 투자		
	총액	비중	순위	총액	비중	순위
1992	1	0.1	23	233	10.4	3
2003	49	0.8	17	2,963	44.8	1
2007	384	3.7	8	7,432	24.0	1
2012	727	4.5	5	7,016	17.	1
2016	2,049	9.6	5	4,002	8.1	3
2020	1,991	9.6	4	4,691	7.6	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1)

한·중 산업별 투자를 분석해 보면, 2021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비중이 79.9%로 여전히 높지만, 1992년의 89.0%에 비해 소폭 감소한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서비스 산업 투자는 같은 기간 동안 11.0%에서 20.7%로 상당히 증가했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으로 서비스업 중심이었으나, 2019년 이후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양국 간 경제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고 있다. 서비스업에 집중했던 중국의 투자 전략이 다각화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는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단순한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다. 중국이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한국의 제조업 분야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작용은 양국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며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¹⁷⁾

코로나19 사태는 양국에 의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특히, 이 시기에 비대면 진료 기반의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과 투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사스 발병 이후 대대적인 의료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여전히 의료 시스템의 취약점을 경험했다. 대도시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지방 도시의 의료 수준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방 거점 도시와 농촌 지역에 인

17) 张弛. "韩国对中美战略博弈的认知, 因应与中韩关系走向." 国际问题研究, 2022, pp.3~4.

공지능, 의료 로봇, 5G, 원격진료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의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더욱 강화시킨다.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상호보완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¹⁸⁾

코로나 19는 특히 지역 무역 협정의 회원국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코로나 19가 국가 간 무역 관계와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정부 정책 반응을 통한 코로나 19의 영향 측정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 19가 어떻게 전 세계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쳤는지, 국제 무역 패턴과 경제정책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코로나 19의 영향이 지역 무역 협정 회원국에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협정이 각국의 경제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¹⁹⁾

코로나 19가 초래한 심각한 인간적 및 경제적 위기에 주목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깊은 경기침체를 경험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각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다. 특히, 경제 회복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재건하기(Building Back Better)'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단순히 경제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탄력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⁰⁾ 또한, 코로나 19가 전 세계에 끼친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 경제재구성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각국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²¹⁾

18) 樊傑, 李丹, "中韓兩國地方政府的合作研究: 以新冠疫情中的合作爲中心.", 2020, pp.23~24.

19) Barbero, Javier, Juan José de Lucio, and Ernesto Rodríguez-Crespo. "Effects of COVID-19 on trade flows: Measuring their impact through government policy responses" 2021.

20) 李淮曄, 金洪起. "中韓貿易結構分析." 中國工業經濟2, 2002, pp.47~54.

21) Lencucha, Raphael, and Anne Marie Thow. "Intersectoral policy on industries that produce unhealthy commodities: governing in a new era of the global economy?.", 2020.

코로나 19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과 효과적인 코로나 19 관리를 통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중국이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신속한 조치를 함으로써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회복 과정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보여준다.²²⁾ 또한, 중국의 경제 회복 과정이 다른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에 어떤 교훈을 제공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는 세계 경제 회복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코로나 19 시대의 경제회복에 대한 중요한 사례연구로, 특히 중국의 경제회복 전략과 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²³⁾

코로나 19가 무역 및 개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제공한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 무역과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무역 흐름의 변화, 경제적 충격,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불평등 증가와 같은 주요 문제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탐구한다. 이는 향후 유사한 세계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더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 및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코로나 19가 세계 무역 및 개발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제시한다. 이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²⁴⁾

3. 무역구조와 GVC의 이론적 고찰

1) 무역구조의 개념

22) 餘道先, 劉海雲. “我國服務貿易結構與貿易競爭力的實證分析. 國際貿易問題.” 10, 2008, pp.73~79.

23) Jiang, Dayang, Xinyu Wang, and Rui Zhao. "Analysis on the economic recovery in the post-COVID19 era: evidence from China. " *Frontiers in Public Health* 9. 2022, pp.78~90.

24) Durant, Isabell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rade and development: lessons learned", 2022.

무역구조는 다각적인 개념으로서 국가의 경제지형과 정책 방향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틀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의 경제활동을 역동적으로 반영한 것이다.²⁵⁾ 정책 입안자들은 복잡한 무역구조를 조사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²⁶⁾ 예를 들어,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는 더 균형 잡힌 무역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거나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수도 있다.²⁷⁾ 무역의 부문별 구성을 이해하면 정부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역구조 분석은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적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기술과 시장 선호도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 전략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²⁸⁾ 무역구조 내에서 GVC의 역할을 인식하면 국가가 특정 생산 프로세스의 통합 및 전문화 기회를 식별하고 경제 성장과 고속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역구조 분석의 핵심은 몇 가지 중요한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가의 교역 상품과 서비스를 자세히 조사하고 이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비교우위를 드러낸다. 둘째, 무역 동반자의 지리적 분포를 조사하여 중요한 관계와 지역적 역학을 강조한다. 셋째, 경제 건전성과 해외시장 의존도를 반영하는 무역수지를 평가한다. 또한 무역구조 분석은 동반자, 제품 및 외부 요인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무역 패턴을 추적한다.²⁹⁾ 부문별 분석은 무역을 주도하는 주요 산업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결정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무역구조는 후술할 GVC에서 국가의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 발전과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설명한다.³⁰⁾ 이러한 포괄적인 관점은 정책 입안자와 기업이 국제 무역을 탐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5) Helpman, Elhan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rade structur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2.3, 1985, pp.443~457.

26) 餘道先, 劉海雲, "我國服務貿易結構與貿易競爭力的實證分析." *國際貿易問題* 10, 2008, pp.73~79.

27) Chachulski, S., Jennings, M., Katti, S., & Katabi, D. "Trading structure for randomness in wireless opportunistic routing.", 2007, pp.169~180.

28) 陳柳欽, "有關全球價值鏈理論的研究綜述." *南都學壇: 南陽師範學院人文社會科學學報* 29.5, 2009, pp.110~118.

29) Kali, Raja, Fabio Méndez, and Javier Reyes.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16.2, 2007, pp.245~269.

30) 李准擘, 金洪起. "中韓貿易結構分析." *中國工業經濟* 2, 2002, pp.47~54.

무역구조는 세계 경제에서 한 국가의 위치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하며 경제 발전 전략, 무역정책 수립 및 국제 경쟁력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국제 무역의 구성, 동반자, 균형, 패턴, 부문 및 가치사슬 참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해관계자는 세계 시장의 복잡성을 더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2) GVC의 개념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의 개념은 초기 개념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다양한 프로세스와 활동을 복잡하게 엮는 중추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을 의미한다.³¹⁾ GVC는 제조, 디자인, 개발, 마케팅, 유통 및 포괄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활동을 포괄한다.³²⁾ 본질적으로 GVC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성하고 세계 시장에 전달하는 다양한 단계와 작업의 복잡한 연결망이며, 이는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GVC는 글로벌 무역과 산업 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전 세계로 확장되는 복잡한 생산 네트워크 생성을 촉진한다.³³⁾ 이를 통해 기업은 여러 국가의 구성 요소와 부품을 조달하고 이를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전 세계 소비자에 배포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상호 연결성을 통해 기업은 가치사슬 내에서 특정 부문이나 작업을 전문화할 수 있어 경쟁력이 향상된다.³⁴⁾

중요한 것은 GVC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혁신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³⁵⁾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이들 국가는 기술 학습과 혁신을

31)張輝, "全球價值鏈理論與我國產業發展研究." 中國工業經濟 5, 2004, pp.38~46.

32)劉志彪, 張傑, "從融入全球價值鏈到構建國家價值鏈: 中國產業升級的戰略思考" 學術月刊9, 2009, pp.59~68.

33)張向陽, 朱有為, "基於全球價值鏈視角的產業升級研究" 外國經濟與管理 27.5, 2005, pp.21~27.

34)楊翠紅, 田開蘭, 高翔, 張俊榮, "全球價值鏈研究綜述及前景展望" 系統工程理論與實踐, 40.8, 2020, pp.1961~1976.

35)張輝, "全球價值鏈動力機制與產業發展策略" 中國工業經濟 1, 2006, pp.40~48.

위한 귀중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은 글로벌 생산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개발 단계를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현대 세계 경제에서 GVC는 세계 경제활동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함께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현대 경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며 기업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글로벌 규모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³⁶⁾ 더욱이, GVC 내에서 국경 간 생산 공유가 증가하는 것은 선진 산업 국가에서 신흥 경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경제 환경을 재편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³⁷⁾ 결론적으로, GVC는 오늘날의 세계 경제에서 국가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는 방식을 재편하는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개념이다.

3) 무역구조와 GVC의 상호작용

무역구조와 GVC 간의 상호 작용은 글로벌 생산 및 유통의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특성을 반영하여 현대 국제 무역을 크게 형성한다. GVC는 디자인, 제조, 유통 등 다양한 단계를 포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나타내며, 이는 점차 여러 국가에 걸쳐 분산되고 있다.³⁸⁾ 이러한 생산 작업의 분배는 완제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중간 상품과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전통적인 무역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진다.

이제 국가와 기업은 첨단 제조, 연구 개발, 조립 등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가치 사슬의 특정 부문을 전문화하고 있다. GVC의 참가국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의 일부에 기여하므로 이러한 전문화는 전반적인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그 결과, 한 국가의 무역구조는 최종 제품만을 수출하는 것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다양한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진화한다. 예를 들어, 한 국가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부품으로 변환한 다음 최종 조립을 위해 이러한 부

36) Gereffi, Gary. "Global value chains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Antitrust Bulletin 56.1, 2011, pp.37~56.

37) 王嵐. "融入全球價值鏈對中國製造業國際分工地位的影響" 統計研究 5, 2014, pp.17~23.

38) Zhang, H., Wang, X., Tang, J., & Guo, Y. "The impact of international rare earth trade competition on global value chain upgrading from the industrial chain perspective" Ecological Economics 198, 2022.

품을 다른 국가로 수출할 수 있다.

GVC로의 이러한 통합은 경제 정책과 산업 전략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 서비스, 자본의 국경 간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정 GVC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³⁹⁾ 또한 GVC에 참여하면 국가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체인에서 자신의 위치를 최적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경제동반자 관계 및 지역 무역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GVC는 세계 경제 역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체인의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전체 네트워크에 파급될 수 있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을 생성한다.⁴⁰⁾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은 GVC가 국제 무역구조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보여주는 예이다. 삼성전자는 복잡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반도체는 대만, 카메라 센서는 일본, 디스플레이 패널 등 다양한 부품을 한국에서 구매해 각국의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조립은 주로 낮은 인건비와 유리한 무역정책으로 인해 선택된 베트남과 인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GVC 상호작용은 각 참가국의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하이테크 중심 무역구조에 맞춰 하이테크 부품 수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조립 허브 역할을 하는 베트남과 인도는 무역구조가 하이테크 중심 무역구조에 더 맞춰져 있다.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에는 각국의 뚜렷한 경제정책과 무역 협정이 필요하며, 한국은 R&D와 첨단 기술 수출을 강조하고 베트남과 인도는 제조 및 조립 투자 유치 정책을 육성한다. 최종 조립된 스마트폰의 전 세계적 유통은 베트남과 인도의 무역수지에 더욱 영향을 미쳐 수출 수치를 증가시킨다.⁴¹⁾ 전반적으로 삼성의 운영은 GVC가 여러 국가의 무역구조를 복잡하게 연결하여 무역수지, 경제정책 및 산업 초점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GVC가 글로벌 무역 역학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은 전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혼란 속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그러나 GVC는 또한 국가, 특히 신흥

39) Xiao, H., Meng, B., Ye, J., & Li, S., "Are global value chains truly global?" *Economic Systems Research* 32.4, 2020, pp.540~564.

40) 吳友群, 盧懷鑫, 王立勇. "數字化對製造業全球價值鏈競爭力的影響——來自中國製造業行業的經驗證據." *科技進步與對策* 39.7, 2022, pp.53~63.

41) 金暎漢. "逆全球化與全球供應鏈崩解的時代以及韓國經濟的未來." *成均中國觀察* 39, 2022, pp.86~90.

경제국이 특정 가치사슬 부문을 전문화함으로써 세계 시장에 통합하고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⁴²⁾

무역구조와 GVC 간의 상호 작용은 국가와 기업이 국제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정책을 형성하고, 무역과 생산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재정의하는 글로벌 무역의 초석이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복잡성을 해결하고 GVC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전략적 경제계획 및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 선행연구의 고찰 및 평가

1) 경제무역 협력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국제 무역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넓게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 무역 개방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제 무역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제 무역은 국가의 혁신 능력을 촉진하고, 기술 전달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런 요인들은 무역 개방이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국제 무역은 여러 방면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이는 무역정책과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고려 사항이 된다.⁴³⁾ 특히 국가 간 경제 협력은 개발도상국이 세계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진다.⁴⁴⁾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경제적 효율성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⁴⁵⁾ 이는 무역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42) Xing, Yuqing. "China and global value chain restructuring." China Economic Journal 15.3, 2022, pp.310~329.

43) Afonso, Óscar, "The impact of international trade on economic growth. " Investigação -Trabalhos em Curso 106, 2001,

44) Urata, Shujiro. "Globalization and the growth in free trade agreements" Asia Pacific Review 9.1, 2002, pp.20~32.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들이 무역 자유화를 통해 어떻게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국가 간 무역 협정이 경제적 협력 강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무역을 증대시킨다. 이 과정에서 국가들은 더 많은 시장 접근 기회를 얻고,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또한, 세계화는 기술과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는 국가 간 기술 전파와 혁신의 가속화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경제 통합이 국가 간 무역의 증대, 효율성 향상,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증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이해는 무역정책 및 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⁴⁵⁾

그러나 세계화는 또한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을 증대시키는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더 두드러지며, 이들 국가는 세계화 과정에서 경쟁력이 더 강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결국, 세계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조명하며, 특히 국가별 경제 성장, 산업 구조 변화 및 국제 무역 패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한다.⁴⁷⁾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먼저 구성철의 연구는 코로나 19 사태 속 한·중 경제 협력 부문에서 미·중 경쟁이 한·중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시나리오의 진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미국의 압력을 능숙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⁴⁸⁾ 여기에는 기술 및 금융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대체 경로를 식별하고 미국의 능력과 일치하거나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영역에서 강력한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포함된다.

남중국해 긴장, 대만과의 양안 관계 등 지역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중국의 평화

45) Abbas, Shujaat.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economic impact on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13, 2014, pp.218~220.

46) Thirlwall, Anthony P. "Trade agreements,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 selective survey." *African Development Review* 12.2, 2000, pp.129~160.

47) Kentor, Jeffrey. "The long term effects of globalization on income inequality,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Social Problems* 48.4, 2001, pp.435~455.

48) 구성철. "한중수교 30 주년: 한중관계 회고와 그 미래" *아시아연구* 25.1, 2022, pp.23~41.

적 해결 추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한·중 경제 협력 역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인 지역 환경은 경제유대를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의 중단을 최소화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쿼드(Quad) 및 쿼드 플러스(Quad Plus)와 같은 국제 지정학적 틀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사드 배치와 같은 과거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전략적 결정은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강화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주요 글로벌 강대국 간의 역학 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구성 요소로서 전략적 탐색, 평화로운 분쟁 해결 및 외교적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환우의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30년에 걸친 경제무역 관계를 종합해서 전망을 제시하였다.⁴⁹⁾ 지난 30년 동안 한·중 경제·무역 관계는 3단계를 거쳐 4가지 주요 변화 영역을 거치며 크게 발전해왔다. 처음에는 한국의 중국 내 생산 및 가공과 한국의 중국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점차 한국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고, 중국은 선진 기술 도입 및 획득을 목표로 하는 모습으로 발전했다. 현대자동차의 합작법인과 삼성전자의 중국 지역본부 설립 등 중요한 진전은 중국 내수시장을 향한 전략적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BOE 테크놀로지그룹의 하이닉스 인수,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등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 확보에 노력했다. 이 기간은 한국의 무역구조가 주로 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에서 중국과의 더 다양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육성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단순한 가공생산과 투자유치를 넘어 한·중 경제 협력 강화가 강조된다.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력하고 다면적인 경제 협력의 길을 제시하면서 상호 시장 침투와 기술 협력을 통해 경제 관계를 심화할 것을 권장한다.

코로나19 사태는 한·중 무역협력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⁵⁰⁾ 전염병으로 인해 공급망이 붕괴되고 무역

49) 정환우. "한·중 경제무역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국제. 지역연구, 31.2, 2022, pp.109~140.

50) 김상만. "코로나 19 팬데믹 (COVID-19 Pandemic)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한 고찰" 무역법무정책 1, 2021, pp.196~210.

역학이 바뀌면서 양국이 경제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과제에 적응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이는 더 디지털화되고 비접촉식 무역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무역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했다.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중국 역시 무역 관행과 정책을 조정해야 했다. 두 국가 모두 전통적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재평가하고 더 탄력적이고 다양한 무역 모델을 모색해야 했다. 여기에는 공급망 현지화, 새로운 시장 개척, 글로벌 혼란의 영향을 덜 받는 부문에 대한 투자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포함된다. 코로나19는 또한 무역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19로 재편된 세계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공중 보건, 기술 교환, 경제회복 전략에 대한 공동 노력을 포괄하며 전례 없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여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적응력 있는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표2-5>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주요 결과
Afonso(2001)	국제 무역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다양성을 촉진하며 생산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짐. 무역 개방은 국가의 혁신 역량과 세계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킴
Abbas(2014)	무역 자유화는 개발도상국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제적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한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짐.
Urata(2002)	경제 통합은 국경 간 무역을 증가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경제안정을 촉진한다. 이 프로세스는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며, 국가가 경제적 충격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줌
Thirlwall(2000)	경제 통합은 국가간 교역을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안정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는 경제 발전과 무역정책 및 전략의 기초로서 이러한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Kentor(2001)	세계화는 경제적 장벽을 줄이고, 무역을 늘리며, 기술과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이는 시장 확장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불균형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구청철(2022)	코로나19 사태 속 미·중 경쟁 속에서 한·중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시나리오의 추이를 살펴봄, 중국이 미국의 기술·금융 압박에 능숙하게 대처할 필요성 시사
정환우(2022)	지난 30년 동안의 한중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회고 및 전망을 제공하며, 지난 수년간의 전략적 변화와 발전 강조
김상만(20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역 환경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경제 동반자 관계 과제에 대한 적응 강조.

자료: 연구자 정리

위 선행연구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국제 무역, 무역 자유화, 경제 통합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 접근을 강화하며, 글로벌 규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경제의 다각화와 혁신, 생산성 향상,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연구

격차는 특히 경제적 불균형과 경쟁이 덜한 국가가 직면한 과제의 맥락에서 이러한 요인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이다.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양국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교류, 혁신 동반자 관계, 신흥 산업의 공동 노력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각 경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과 전자상거래를 무역정책에 어떻게 추가로 통합할 수 있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과 중국은 공동 연구 개발 계획, 기술 합작 투자, 세계 경제과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공유를 통해 무역과 경제 협력의 혜택이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다.

2) 무역구조와 GVC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몇 년 동안, 세계화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을 이어가며 세계 경제무역 협력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지주로 자리 잡았다. 국제 협력 메커니즘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확산하면서, 국가 간 경제무역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국제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금융 기관을 개혁하는 것은 이를 위한 중요한 단계다.⁵¹⁾ 특히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세계 경제무역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가들은 상호 교류와 학습을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모든 참여자가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경제 협력을 통해 국가들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자원의 최적화된 할당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다.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나서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최적화된 배분이 이루어진다.⁵²⁾

51) Gereffi, Gary. "Global value chains and development: Redefining the contours of 21st century capit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1989년 Paul Krugman은 국제 무역 분야의 중추적인 연구로서 전통적인 이론을 크게 확장했다.⁵³⁾ 이 연구는 무역구조가 비교우위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와 기술 진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규명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전통적으로 이 원칙은 국가가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고유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전문화하고 무역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비교우위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개념이라고 단정한다. 이는 내부 및 외부 경제요인의 영향을 받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국가가 특정 전문 분야를 개발하는 방법과 이유, 그리고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이러한 전문 분야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유동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규모의 경제를 논의하면서 크루그먼은 그것이 국제 무역의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탐구한다. 대량 생산을 통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해당 산업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을 전문화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무역에 전략적 차원을 도입한다. 이러한 통찰력은 국가의 무역 전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제조 및 기술과 같이 규모가 중요한 요소인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기술 진보에 대한 크루그먼의 강조는 무역구조의 또 다른 역동적인 측면을 밝혔다. 기술 발전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을 변화시킴으로써 비교우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크루그먼 이론의 이러한 측면은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획득하는 데 있어 혁신과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 전망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Dani Rodrik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비추어 진화하는 무역구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⁵⁴⁾ 특히 주요 경제력의 부상이 GVC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무역 역학의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이는 이러한 상승이 대규모 노동력, 비용 효율적인 생산, 산업 역량 증가와 같은 경쟁

52) Xing, Yuqing. "China and global value chain restructuring" China Economic Journal 15.3, 2022, pp.310~329.

53) Krugman, Paul R. "Industri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Hand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2, 1989, pp.1179~1223.

54) Rodrik, Dani. "What's so special about China's exports?." China & World Economy, 14.5, 2006, pp.1~19.

우위에 기인하여 저가 제조업 부문에 상당한 무역 집중을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발전은 다른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문에서 경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조 부문에 대한 참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의 무역 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국가, 특히 선진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반영하며, 저부가가치 제조업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적으로 더 진보된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로 이동한다. 이 연구는 세계 무역 역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는 중요한 경제적 변화와 정책 결정이 세계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글로벌 제조 부문의 재분배와 경제 발전의 여러 단계에 있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묘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 분석은 세계 경제 관계의 복잡하고 진화하는 성격에 대한 핵심 통찰력을 제공하여 글로벌 무역 및 경제 전략에 대한 담론을 풍부하게 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무역 협력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경제 세계화는 상품, 기술, 정보, 서비스, 통화, 인력, 자금, 관리 경험 등 생산 요소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을 통해 세계 경제를 하나의 긴밀한 전체로 연결한다. 이러한 경제 세계화는 현대 세계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자 발전 추세다. 이 글로벌 연결성은 국가들이 서로의 경제적 장단점을 보완하고,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무역 협력은 기후 변화, 빈곤, 테러리즘 등의 글로벌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들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다.⁵⁵⁾

국제 협력 메커니즘의 강화는 세계 경제확산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 조직과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개발도상국의 대표성 및 발언권 강화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자유 무역 원칙의 준수와 다자간 무역 체제의 발전은 세계 경제에 필수적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국이 개방된 환경에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지역 경제 협력과 통합은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유

55) 張曉月. "世界經濟增長新空間視角下的“一帶一路”國際傳播." 東嶽論叢 10, 2019, pp.66~72

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은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⁵⁶⁾

반면에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 및 공급사슬의 충격, 대면 접촉 회피로 인한 수요 감소는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신자유주의와 반세계화 추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GVC 참여가 줄고, 해외 진출 기업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이루어지며, GVC가 지역적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⁵⁷⁾

GVC의 복잡성과 이것이 국제 무역구조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념부터 최종 사용 및 그 이상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전체 활동 범위인 GVC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였다. 여기에는 디자인, 생산, 마케팅, 유통, 최종 소비자 지원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GVC가 어떻게 국제 무역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지 탐구한다. 그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GVC가 무역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성은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 있는 복잡한 생산 및 공급 네트워크에서 발생한다. 제품은 더 이상 한 곳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의 창조에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종 제품에 여러 국가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물류, 규제 및 다양한 경제의 상호 작용 측면에서 무역에 복잡성이 추가되는 시나리오가 탄생했다.⁵⁸⁾

또한, GVC가 무역의 지역화를 어떻게 촉진하는지 강조한다. 기업이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을 추구함에 따라 지리적 근접성 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 쉬운 조정을 촉진하고, 운송 비용을 낮추며, 시장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역화는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무역 블록과 지역 협정의 형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먼 국가 간의 비교우위에 주로 기반을 둔

56) Gereffi, Gary, John Humphrey, and Timothy Sturgeon.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2.1, 2005, pp.86.

57) 李慶四, "後疫情時代命運與共的人類未來.", 2022

58) Bernard, A. B., Jensen, J. B., Redding, S. J., & Schott, P. K. "Global firm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6.2, 2018, pp.565~619.

전통적인 무역 모델에서 근접성과 지역 통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더 미묘한 모델로의 전환을 나타낸다.⁵⁹⁾

<표2-6> 무역구조와 GVC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주요 결과
Gereffi(2018)	세계화가 세계 경제무역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 협력 메커니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Xing(2022)	국제 무역구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재구성을 분석.
Krugman(1989)	국제 무역의 새로운 이론적 통찰을 제공, 규모의 경제와 기술 진보가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Rodrik(2006)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역학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
張曉月(2019)	세계 경제의 성장과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무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Gereffi et al.(2018)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거버넌스에 대해 탐구함, 지역 경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
李慶四(2022)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및 공급사슬의 충격과 이로 인한 신자유주의 및 반세계화 추세의 강화를 분석
Bernard et al.(2018)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이것이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謝世清·何彬(2013)	국제 공급망 금융의 세 가지 전형적인 모델 분석과 GVC가 무역의 지역화를 어떻게 촉진하는지 강조.

자료: 연구자 정리

한편, GVC는 세계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촌의 안정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국제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려면 이러한 원칙과 시스템이 적용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상호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세계 무역에 모든 국가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탄력 있고 지

59) 謝世清, 何彬. "國際供應鏈金融三種典型模式分析." 經濟理論與經濟管理 4, 2013, pp.80~86.

속 가능한 세계 경제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GVC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에 대한 대응으로 더 지역적으로 집중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조되었다. 지역화를 향한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이전의 GVC를 특징으로 하는 고도로 세계화되고 상호의존적인 모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GVC에 복잡하게 관여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코로나19 이후 도래한 상황에 대해 도전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시한다. 중국의 국내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한국의 기술 및 제조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양국은 이러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협정을 강화하면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역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양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술, 제조 등 상호 강점이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등 GVC와 세계 경제의 진화하는 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 경제·무역 관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접근했다. 경제무역 협력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국가 간 경제 및 무역 협력이 개인과 집단의 경제 성장, 정치적 관계 및 사회적 역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광범위하게 탐구했다. 이러한 협력은 무역 흐름, 기술 이전, 해외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참여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역구조와 GVC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가 세계 경제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조사한다. 이 연구는 국제 무역의 역학, 다국적 기업의 역할, 다양한 생산 단계에 걸친 가치 분배를 이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사슬을 높이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조명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 협력 및 무역구조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이 두 주요 아시아 경제 간의 구체적인 역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최근 관계 냉각을 인식하고 양국 경제관계를 되살리기 위한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가 차별화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지정학적,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경제동반자 관계의 거시적 의미를 면밀히 조사한다. 여기에는 이러한 상호 작용을 형성하는 정치적 의지, 경제정책 및 외교적 참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무역구조와 GVC의 복잡성을 조사하며, 이들 국가가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 특별히 강조한다.

이 연구의 중요성은 다층적이다. 이는 정책 입안자와 비즈니스 리더에 기존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의 정치적, 사회적 미묘한 측면에도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이 연구는 더 넓은 지역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중 경제 관계의 구체적인 과제와 기회를 다루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국가들이 어떻게 공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양적, 질적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적으로 보면 무역과 투자 모두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질적으로 양국의 경제적 지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가치사슬에서 양국의 위치가 크게 변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세계 환경 속에서 한·중 경제 동반자 관계를 재고하고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상호 연결성과 회복력이 더욱 강화된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협력과 회복에 대한 폭넓은 담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II.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무역구조 변화

1.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

1)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

코로나19 시대는 몇 가지 중추적인 추세로 특징지어지는 세계 경제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첫 번째 중요한 추세는 GVC의 재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글로벌 공급 시스템의 취약성과 한계가 드러났고, 더 탄력적인 구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급망의 지역화 및 다양화로 전환이 예상된다. 글로벌 의존으로 인한 혼란을 경험한 기업은 향후 위험과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소스를 다양화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더 탄력적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 블록 내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추세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확장이다. 코로나19는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원격 근무로의 전환, 온라인 쇼핑의 급증,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는 코로나19 기간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코로나19 시대에 세계 경제구조는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큰 변화를 주도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온라인 쇼핑과 원격 근무의 급증으로 입증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성장했다. 2022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7.6% 증가한 4조 9천억 달러라는 놀라운 규모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6조 3천억 달러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원격 근무자의 비율이 급증했다. 2020년 16.0%에서 2022년 43.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디지털 기술이 더 깊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디지털 변혁은 전자상거래, 재택근무, 디지털

헬스케어, 온라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문을 포괄하며, 디지털 유창성이 단순한 자산이 아닌 필수가 되는 미래를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보건 위기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 사이의 깊은 상호 연관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실현은 비즈니스와 거버넌스 모두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향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이끌고 있다. 디지털화와 함께 기후 변화와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2년 글로벌 친환경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3.6% 증가한 7,500억 달러에 이르렀고, 2023년에는 9,4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영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노력도 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20.3%로 전년 대비 3.5% 증가해 2030년까지 정부 목표인 30%에 가까워졌다.⁶⁰⁾ 이러한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 추세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재편할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기업들은 환경적, 사회적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복력과 소비자 수요를 위해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점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정부 또한 배출 규제, 폐기물 관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자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환경은 더욱 지역적이고 다양한 공급망, 견고한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집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일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회복력, 적응성 및 지속 가능성을 핵심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경제의 전환 단계를 시사한다.

2) 비대면 경제의 부상과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결과인 비대면 경제의 등장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에 크게 의존하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경제활동으로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또는 가상 경제라고도 알려진 비접촉 또는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은 물리적 상호 작용의 부재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특징지어지는 세계

60) 中國可再生能源學會. “2022年中國可再生能源發展報告”, 2022.

경제 및 사회 환경의 중추적인 변화를 나타낸다.⁶¹⁾ 비대면 경제는 코로나19 기간 두각을 나타낸 경제 패러다임으로, 물리적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와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온라인 상거래, 원격 작업 및 가상 서비스의 급증을 촉진한다. 이는 디지털 결제, 전자 상거래,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및 가상 회의의 사용 증가와 전통적으로 인간 상호 작용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동화,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포함한다.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 경제와 비슷하지만, 더 넓은 범위와 강조점을 가진다. 디지털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 생산, 분배, 소비 등 주요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에 의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 디지털 경제는 IT 산업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에 중점을 둔다. 반면, 비대면 경제는 '비접촉' 서비스가 부상하면서 형성된다. 예를 들어, '비접촉' 식당, '비접촉' 휴가, 로봇 배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주로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간의 접촉 없이도 경제활동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음식 주문, 식당에서의 비접촉 주문, 화상 시스템을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산업의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 소비, 건강한 소비, 편리한 소비, 비접촉 소비의 증가는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게임,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 교육, 재택 근무 등 비접촉 환경에서 제공되는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의 변화는 소비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⁶²⁾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과 편의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기업이 운영되고 소비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진행되며 각 부문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20년 초부터 보호주의 강화로의

61) Behl, A., Sheorey, P., Pal, A., Veetil, A. K. V., & Singh, S. R. "Gamification in E-commerce: A comprehensive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in Organizations (JECO)* 18.2, 2020. pp.1~16.

62) 陳櫻花. "後疫情時代: 變化與重組." *科技導報* 40.9, 2022, pp.20~28.

전환을 촉발했다.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 경제활동의 급격한 침체를 가져왔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광범위한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세계 경제가 3.3% 위축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 세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해외 및 해외 투자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응했으며,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시장 변화와 소비자 행동 변화로 인해 세계 경제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세계 무역 장벽 지수는 국가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더 많은 경제적 장벽을 세우면서 10%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의 주목할만한 예로는 미국 무역 대표부(USTR)와 유럽 연합이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럽 연합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긍정적인 결과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IMF는 2020년 디지털 경제가 9% 성장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와 같은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코로나19가 지역 경제 통합과 GVC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났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체인의 특정 연결을 중단시켜 체인을 재편성하고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초래했다. 이는 무역과 투자 규모의 감소로 이어졌다. 많은 국가에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 금지, 노동 이동 제한 등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인력 집중을 줄이고 엄격한 국경 통제를 실시하여 국제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체는 생산 중단 또는 축소에 직면하여 글로벌 공급망 중단 및 유통 차단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통합 및 글로벌 생산 체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보호주의 정책의 증가는 지역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들은 무역 장벽을 부과하고, 노동 이동을 제한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향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글로벌 생산 체인이 중단되어 전 세계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협력보다 국가 이익을 강조하면서 지역 경제 통

합 원칙에 도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 환경이 더욱 파편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는 국가들이 무역 및 경제 전략을 재고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 기간은 글로벌 혼란에 직면한 회복력과 적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는 경제 정책과 동맹을 재고하게 되었다.

2.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1) 한·중 경제무역 협력 과정

한·중 수교 30년간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시기별로 세 단계로 나누고, 무역구조 및 GVC의 관점에서 시기별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 발전 과정은 1992년 양국 간의 수교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⁶³⁾ 이 시기를 '한·중 경제 1.0'이라 칭하며, 이는 수교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중국이 전자제품과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 상품의 중요한 목적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무역량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한·중 경제1.0'은 양국 경제 관계의 초기 단계로, 분업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가공무역을 하고 중국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했다. 주된 업종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이었으며, 주요 지역은 연해 지역이다. 무역과 투자는 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한 방향이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 초기에는 무역구조가 크게 변모했다. 이 시기의 무역은 전통 상품과 원자재 중심에서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은 고급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고가치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수출은 원자재와 중간재에서 한국 제조업의 중요한 생산기지로 발전했다.

한·중 경제 2.0은 중국의 WTO 가입부터 세계 금융위기까지로, 확대와 심화를 모색했다. 이 단계에서는 업종이 다양화되고 제조업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중국 투자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이후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관

63) 김재홍.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 2017, pp.4~5.

계가 발전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문화교류와 관광이 크게 증가하여 경제적 유대가 더욱 강화되었다. 지역적으로는 광동성, 강소성, 산둥성, 베이징, 상하이 등으로 다변화됐다. 무역은 여전히 한 방향이었지만, 투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개시로 쌍방향의 시작됐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GVC 내에서의 통합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기업은 중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양국이 참여하는 복잡한 공급체인을 구축했다. 이 상호의존성은 더 균형 있고 성숙한 무역 관계로 발전하며, 양국은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서 이익을 얻었다. 이 기간에 양국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에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제공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⁶⁴⁾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 성장률은 둔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 유발 효과가 줄어들고, 중국의 중간재 산업 생산 확대와 수입 대체 전략으로 인해 대중 수출이 과거와 같은 급증세를 보이기 어려워졌다. 2014년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IT, 에너지, 환경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구조와 GVC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양국은 단순한 제품 수출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과 기술 협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무역은 수량적 증가를 넘어 질적인 발전을 이루며, 양국 경제의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⁶⁵⁾ 이는 한·중 양국이 세계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재정립하고, 양국 간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한·중 경제 3.0"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 단계는 중국의 '신창타이'⁶⁶⁾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창타이, 즉

64) 張輝. "全球價值鏈動力機制與產業發展策略." 中國工業經濟 1, 2006, pp.40~48.

65) 한국의외교부, "중국개황.", 2017.

66) 중국의 신창타이(新常態)는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단계를 의미한다. 신창타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 중국 경제는 201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했지만, 2012년 이후 7%대 성장으로 둔화되었다. 이는 노동력 감소, 자원 고갈, 환경 오염과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둘째, 성장 방식이 변화했다. 중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제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환경 오염이 심한 산업이므로, 중국 정부는 서비스업을 육성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정상 상태’는 2012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의해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양국의 무역은 쌍방향으로 발전하여 무역 불균형이 완화되었으며, 투자도 제조업에서 서비스 및 ICT 분야로 확대됐다. 제도적으로는 비 제도화와 양자 협상에서 글로벌 규범과 FTA로 발전했다.

무역구조와 글로벌 가치 체인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단순히 빠른 성장률을 추구하는 대신, 지속 가능하고 질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기술 혁신, 친환경 정책, 서비스 산업의 발전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이미 고급 기술, 전자제품, 친환경 기술 등에서 강점이 있어,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정책과 부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의 무역을 단순한 제품 교환에서 더 나아가 기술과 지식 기반의 상품과 서비스 교환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시장과 기술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두 나라는 국제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⁶⁷⁾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중국 간 무역구조와 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양국 간 교역액은 크게 증가했으며, 투자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 관계에서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경공업 제품과 중화학 산업 제품의 교류가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역구조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 경제의 발전과 함께 기술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⁸⁾

로렌스 지수, 한국 무역 특화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와 무역 결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로렌스 지수 분석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가

67) 신정승. "한중수교 30 년과 미래 한중관계 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 11.1, 2023, pp.20~30.

68) 전보희, 조의윤,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21.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classification=1&no=2251>)

크게 나타났고, 5월부터 변동성이 약화됐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으로, 코로나19가 한국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전에 한국은 특정 산업, 예를 들어, 화학 물질, 제조제품, 기계 및 수송 장비, 잡품 등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졌으나, 1월부터 이러한 산업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결과,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가 한국의 산업내무역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무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내무역지수는 영향받지 않았다. 무역결합도 지수 분석에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결합도는 1보다 더 크며, 이는 두 나라 간 높은 무역 의존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변혁과 산업 고도화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감소하는 추세다.

코로나19가 한국의 무역구조, 특히 수출구조와 비교우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과 중국 간 무역의 구조적 차이를 확인했다. 한국은 중공업 및 IT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⁶⁹⁾

1992년 수교 이후 현재까지의 한·중 경제 관계의 발전 과정은 다음 <표1-7>과 같다.

69) 마학삼, 김석태. "코로나19 이후 한국무역 환경 변화 및 한·중 무역 전망에 관한 연구." 비즈니스연구, 2021.

<표3-1> 한·중 경제관계의 시기별 특징

구분	한·중 경제1.0	한·중 경제2.0	한·중 경제3.0
특성	▪ 분업협력	▪ 확대 · 심화 모색	▪ 시장통합
시기	▪ 수교(1992년) ~ 아시아금융위기(1997년)	▪ 중 WTO 가입(2001년)~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중, '신창타이'(2012년) ~ 현재
목적	▪ 한, 대중 가공무역 ▪ 중, 대한 투자 유치	▪ 한, 대중 가공무역+내수 개척 ▪ 중, 대한 투자 유치, 개방확대	▪ 한, 대중 가공무역+내수 개척, GVC ▪ 중, 대한 GVC활용, 내수 개척
업종	▪ 노동집약 제조업	▪ 다양화, 제조업	▪ 다양화, 제조업, 서비스업
지역	▪ 연해지역(연태, 위해, 청도, 대련 등)	▪ 다양화 (광둥성, 강소성, 산둥성, 베이징, 상하이 등)	▪ 전국화 ▪ 생산거점 중심 다변화
방향	▪ 무역: 일방향(한→중), ▪ 투자: 일방향(한→중)	▪ 무역: 일방향(한→중), ▪ 투자: 일방향(한→중) → 중→한 개시	▪ 무역: 쌍방향(무역불균형 완화), ▪ 투자: 쌍방향, 중, 대한 투자 확대
제도	▪ 비제도화, 양자 협상	▪ 글로벌 규범(WTO)	▪ FTA

출처: 김재홍(2017)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수정·보완

2) 한·중 무역구조 특징

(1) 한국 무역구조의 특징

한국의 무역구조는 경제 성장과 세계적 명성에 기여한 몇 가지 주목할만한 특징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특히 반도체, 전자, 통신 장비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 수출로 유명하다. 삼성, SK 하이닉스, LG 전자와 같은 기업은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최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이러한 전문화는 수출 수익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명성도 높여주었다.⁷⁰⁾

70) 胡玥, 王生. "中韩经贸合作面临的问题, 趋势与对策." 经济纵横 5, 2019, pp.103-104.

한국 무역구조의 주요 측면 중 하나는 GVC에 적극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GVC에서는 다양한 생산 단계가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으며, 한국은 글로벌 제조업체에 중간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통합은 최종 제품 조립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잡한 제품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무역의 또 다른 축이다. 현대·기아차 같은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의 자동차를 수출한다. 이러한 수출은 품질과 경쟁력이 뛰어나 국가 수출 수익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 상대국 측면에서 한국은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최대 무역 동반자이지만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도 광범위하게 교류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 동반자의 다양성은 단일 시장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경제변동에 직면한 회복력을 향상시킨다.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구는 한국 무역구조의 또 다른 특징이다. 한·미 합의 같은 협정 FTA(KORUS)와 한-유럽연합 FTA는 한국 수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 관세를 낮추고 무역 성장을 촉진했다.

더욱이 한국의 무역구조에는 금융, 엔터테인먼트, 기술 서비스와 같은 산업을 포괄하는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고 있다. 이 부문의 확장은 지식 기반 경제를 향한 국가의 광범위한 전환을 반영한다.

(2) 중국 무역구조의 특징

중국의 무역구조는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을 반영하는 몇 가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중국은 전자, 기계, 섬유, 소비재 등 광범위한 제품에 걸쳐 공산품의 지배적인 세계적 수출국이다. 이러한 수출 능력은 중국의 방대한 제조 역량, 비용 효율적인 노동력, 광범위한 공급업체 및 생산자 네트워크를 통해 뒷받침되며,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중국은 생산과정이 국제적으로 분산되는 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여러 국가의 구성 요소와 투입물이 필요한 제품의 최종 조립 지점 역할을 한다. GVC의 이러한 중심 역할은 중국의 무역량을 증폭시키고 수출 포트폴리

오를 다양화하여 다양한 생산 단계에서 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셋째, 중국은 저가 수출에서 고부가가치 수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 통신 장비, 첨단 기계 등 첨단 기술 제품의 급속한 성장에서 잘 드러난다. 가치사슬을 높이려는 중국의 야심은 연구개발(R&D)과 혁신에 대한 투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를 통해 더 정교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의 무역 동반자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무역 동반자이지만 중국은 유럽연합(EU), ASEAN 국가 및 기타 지역과 중요한 무역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무역 동반자의 다양화는 단일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기술 서비스를 무역구조의 성장 구성 요소로 수용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기업이 부상하면서 중국은 디지털 상거래와 핀테크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중심의 변화는 중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 성장에서 더 균형 잡힌 소비 중심 모델로 더 폭넓게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중국의 무역구조는 세계 경제에서 역동적이고 다면적이며 중추적이다. 제조품의 주요 수출국의 역할, GVC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고부가가치 수출 강조, 다양한 무역 동반자, 성장하는 서비스 부문이 무역환경을 종합적으로 정의하여 중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다음 <표3-2>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에 대한 비교 개요를 제공하며, 경제모델과 글로벌 무역 위치의 독특한 측면과 공통점을 강조한다.

<표3-2>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특징

구분	한국의 무역구조	중국의 무역구조
주요 수출품	반도체, 전자, 통신 장비 등 첨단 제품.	전자, 기계, 섬유, 소비재 등 산업용 제품.
GVC	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간재 및 부품을 공급한다.	GVC의 중심 역할. 국제 생산을 위한 최종 집결지 역할을 한다.
주요 산업	기술(삼성, SK 하이닉스, LG), 자동차(현대, 기아).	다양한 범위, 최근에는 첨단 기술 제품과 첨단 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역 동반자	중국, 미국, 일본, EU를 중요한 동반자로 삼아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EU, ASEAN 국가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무역 협정	KORUS, 한-EU FTA 등 FTA 추진.	-
경제적 변화	서비스 부문(금융, 엔터테인먼트, 기술 서비스)이 성장하면서 지식 기반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 무역 및 서비스(전자상거래, 핀테크)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면서 제조 중심 성장에서 더 균형 잡힌 소비 중심 모델로 전환한다.
제조/서비스	제조로 유명하다. 진화하는 서비스 부문.	대규모 제조 능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부문.
글로벌 포지션	수출 수익이 높은 기술 강국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

자료: 연구자 정리

3) 한·중 대외경제무역 현황

(1) 한국 대외경제무역 현황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펼치는 한국은 FTA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FTA를 통해 한국은 미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전자제품, 중공업 제품 등의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외자 직접 투자 유치에서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국이다. FTA 발효 이후 미국은 한

국의 전체 외자 직접 투자에서 22.0%, 한국의 대미 투자는 해외 투자에서 2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과 미국 간 경제적 관계가 상호의존적이고 강력함을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 간 FTA는 무역 증가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⁷¹⁾

한국은 미국과 중국 외에도 주요 경제국들과의 교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무역 수요를 증가시켰고, 한국 기업의 국제화 전략 및 정부의 수출 지원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4년 한국은 칠레와 FTA 협상을 시작했고, 이 단계에서 FTA 전략 및 정책 연구와 수립에 집중했다. 이후 2006년부터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해 2007년에 발효시켰다. 이러한 FTA는 한국의 수출 증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⁷²⁾

한국은 대외투자와 기술 이전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직접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해외에 생산 및 연구개발 기지를 설립, 현지 시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알려진 우대정책과 특별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 기업의 선진 기술과 산업의 해외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2023년 7월 4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신고액이 170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2%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분기 외자 투자 신고액은 114억 6,000만 달러로, 역대 2분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외자 투자액은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상반기 실제 투자액은 77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⁷³⁾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맞서 한국은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에너지차,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신에너지차 산업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 협력은 기술 개발, 생산, 공급체인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독일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 협력은 연구개발, 기술 교류,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

7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무역연구원. “한미FTA 10년 평가와 과제.” 2022.

72) 中國社會科學院亞太與全球戰略研究院. “中國與韓國經貿關係發展報告.” 2022.

73) 조재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171억달러 ‘사상 최대’” 조선일보, 2023.

해 양국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산업 협력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⁷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한 지역경제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RCEP는 한국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한국은 세계 8위의 대외무역국으로, 2021년 수출입 무역 총액이 1조 2,6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RCEP 15개 회원국 중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협정의 발효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 통합을 더욱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세계 경제무역 협력의 전략적 동반자를 확대하고 자국 수출 지향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신남방 정책"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CEP 협정은 한국이 이러한 경제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구체적인 경로를 제공하며,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경제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⁷⁵⁾

한국은 경제 및 무역 협력에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강한 활력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양자 무역의 성장, FTA 체결, 투자 및 기술 이전, 서비스 산업 협력, 전략적 산업 협력, 지역 경제 통합, 정부 간 경제 협력 및 교류는 한국과 동반자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교류는 단순히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넘어서,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세계 경제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2) 중국 대외경제무역 현황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 패권 다툼 속에서 중국의 양자 무역 및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촉진되고 있다. 중국이 서명한 주요 FTA 중 하나인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

74) 王佳明, “韓國主導產業的技術創新模式研究.” 2023.

75) 湯志賢, “RCEP推動韓國全面融入東亞區域經濟一體化.”, 2022

대(CAFTA)는 2010년에 전면 발효되어 중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간의 무역 자유화를 포괄했다. 2009년에 발효된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CSFTA)은 양측에 더 광범위한 시장 접근 및 관세 혜택을 제공했다.

2014년에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CSFTA)이 발효되어 양국 간 더 편리한 시장 접근과 관세 혜택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나우루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FTA들은 중국의 글로벌 무역 및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⁷⁶⁾

중국은 여러 지역 협력 조직을 지원하며 모든 당사자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20개국 정상회의(G20), 아세안 및 한·중일 협력,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 메콩 지역 협력 등 다양한 글로벌 및 지역 협력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무역 협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광범위한 협력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다자 무역 시스템을 견고히 유지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모범이 되었다.⁷⁷⁾

중국은 현재 26개국·지역과 19개 FTA를 체결했고, 이들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에 걸쳐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목록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시장 지향적이며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은 5년 연속으로 전국 및 자유 무역 시범구의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목록을 수정했고, 외국인 진입 특별 관리 조치는 각각 93개 및 122개에서 31개 및 27개로 줄였다.

중국의 양자 무역과 투자가 촉진되었다. 2020년부터,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각 구성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 접근 협상을 완료했다.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가 영상으로 개최되었고, 15개국 정상이 조인식에 참석하며 RCEP는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 RCEP는 인구 규모에서 전 세계의 30%, 즉 약 22억 명을 포함하며, GDP 규모에서는 25조 6,0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29.0%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무역 규모에서는 역내 무역이 10조 4,0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27.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RCEP는 유럽연합(EU)과 북미 자유무역지역을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76) 跨境电商系统, https://www.tp-shop.cn/newslst_116.html

77) 王婧, “中國積極推動區域經濟合作新發展.”, 2019

무역 협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⁷⁸⁾

중국은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해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을 촉진했다. 1992년 중국의 FDI는 110억 700만 달러였지만, 2022년에는 1,891억 3,2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 외자 직접 투자는 자금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도 가져왔다. 중국 정부는 외자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외자 투자에 더 유리한 정책과 조치를 제공했다.⁷⁹⁾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일대일로'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회원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공동 건설 및 공유를 추구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했다. 이는 151개 국가와 32개 국제기구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고, 점점 더 많은 국가와 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다. 세계은행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대일로'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모두 시행되면 2030년까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조 6,0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경제 전체의 1.0%를 차지할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5년 연속 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는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며 글로벌 참여와 국제 공공재 공유를 위한 높은 수준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중국은 유엔, 세계무역기구, G20,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등 다양한 다자간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BRICS 신개발 은행, 실크로드 기금과 같은 다자 개발 조직과 함께 협력을 육성하고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참여는 세계 경제, 지역 발전,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⁸⁰⁾

78) 觀研天下, “中國RCEP自貿區行業現狀深度調研與投資趨勢研究報告.”, 2022

79) 中經數據, <https://ceidata.cei.cn/>

80) 徐秀軍. “今天的中國是緊密聯系世界的中國.” 2023.

(단위:억 달러)

<그림3-1> 2022년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출처 : 中經數據 , <https://ceidata.cei.cn/>

중국의 대외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거대한 시장 기회, 투자 기회 및 협력 기회를 세계와 공유하며 모든 국가의 상호 이익, 상생 및 공동 번영을 촉진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상호의존적이며 강력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두 나라는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경제적 발전과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며, 다자간 협력을 통해 지역 및 세계 경제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며, 방대한 시장, 투자, 협력 기회를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

3. 코로나19 전후 한·중 무역구조의 변화

코로나19 사태 전·후의 한·중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아시아 주요 경제국의 경제 역학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기 위함이다. 무역 규모, 투자 동반자 관계, 가치사슬, 무역정책을 조사함으로써 코로나19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정책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역량은 양국 무역의 혼란 규모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투자 동반자 관계는 국경 간 투자의 회복력을 드러낼 것이다. 가치사슬을 분석하면 생산 네트워크

의 재구성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역정책을 연구하면 위기에 대한 양국의 적응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무역량에 대한 정량적 영향부터 투자 및 정책 변화의 질적 측면까지 무역 관계의 포괄적인 측면을 다루며, 무역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제공하므로 분석에 유효하다.

1) 교역량의 변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간 무역 역학의 변화는 세계 경제 변화와 전례 없는 사건이 어떻게 국제 무역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사례이다. 코로나19 이전 시대에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 수출로 삼는 등 기술 분야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중국과 함께 무역 흑자를 유지했다. 이러한 무역흑자는 2013년 628억 달러라는 인상적인 금액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이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 지향적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2018년까지 흑자는 556억 달러로 점차 감소했지만, 이는 여전히 양국 간 무역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 시작된 흑자 감소는 코로나19 자체에만 국한된 것은 아. 기술 발전과 세계 시장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추세에 기여했다. 중국은 또한 특정 기술에 대한 한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등 국내 생산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의 가장 실질적인 무역 동반자로 남아 있었고,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무역 관계의 분위기는 여전히 우호적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역 역학의 지속적인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봉쇄로 인해 공급망이 중단되고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중국의 원자재 수입 증가는 아마도 국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무역수지에 더욱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수출경제의 초석인 반도체 산업의 침체였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는 반도체 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수요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반도체 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산업과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파급력은 상당했다.

2023년이 시작될 때까지 한국은 올해 첫 두 달 동안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50억 7천만 달러로 기록했다. 전년도 흑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러한 모습은 무역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세계 한 지역의 경제적 사건이 다른 지역에 파급 효과를 촉발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의 진화하는 성격을 강조한다.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에서 적자로의 전환이 미치는 광범위한 의미는 한국 경제에 있어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 이는 수출 시장과 경제부문 모두에서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변화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글로벌 사건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거의 추세가 항상 미래의 패턴을 예측할 수는 없는 국제 무역의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특성을 강력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발전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2) 투자 동반자 관계의 변화

코로나19 전·후 한국과 중국 간 투자 흐름의 변화는 이들 주요 아시아 경제의 경제역학 변화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제조업, 기술, 인프라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 심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흐름이 크게 중단되었으며,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공급망 중단, 여행 제한 및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활동이 둔화되거나 중단되었다.

한국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에 대응하여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일부 기업은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포함한 다른 국가로 투자와 공급망을 다양화했다. 반대로, 중국의 코로나19 이후 투자 전략은 특히 기술 부문에서 자립에 맞춰져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무역 긴장으로 인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AI, 친환경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가 늘어났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내부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가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하면서 한·중 간 투자 흐름은 새로운

성격을 띠고 있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디지털 서비스 등 중국 내 중요한 소비자 시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더욱 전략적으로 변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첨단 기술 산업, 연구개발, 디지털 서비스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 전략 변화는 기술과 혁신이 점점 더 선두에 있는 국제 경제 관계의 더 넓은 추세를 상징한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에서 기술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가 기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글로벌 제조 및 기술 분야의 가치사슬을 오르려는 중국의 야망과 일치한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중국은 기술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공급망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보다 전략적이고 신중한 투자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팬데믹에 대한 사후적 조정이 아니라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 구축을 목표로 하는 보다 심층적인 전략적 선견지명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은 양국의 경제 지형을 형성하여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도전과 기회에 적응할 수 있고 역동적이며 조율된 관계를 촉진할 것입니다.

3) 한·중 가치사슬의 변화

코로나19 전후의 한·중 가치사슬 변화는 투자 역학의 진화와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된다. 코로나19 이전, 양국 간의 가치사슬은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은 중국의 제조, 기술 및 인프라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첨단 부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반면, 중국은 광대한 시장과 비용 효율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제조 강국이라는 공생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사슬을 붕괴시켜 단일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의존도 수준의 재평가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혼란은 집중된 공급망 구조에 내재된 위험을 강조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여 양국 기업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가치사슬 조정에 착수했다.

한국 기업은 집중 위험을 완화하고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인도 및 기타 지역의 대체 시장과 공급업체를 탐색해 왔다. 이러한 조정은 진화하는 소비자 시장과 기술 발전에 맞춰 더 전략적인 투자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 내 전기 자동차, 재생에너지,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부문에 전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중국의 상당한 소비자 기반을 활용해왔다.

중국을 특히 반도체, AI,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 자립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이는 가치사슬 위치가 글로벌 제조 허브에서 기술 혁신의 원천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두 국가 모두 가시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채택하고, 고급 물류 솔루션을 채택하고, 재고 수준을 늘리고, 향후 혼란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공급망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등 더 강력한 공급망 관리 전략을 구현했다. 이러한 코로나19 이후 가치사슬 조정은 한·중 간 경제관계가 더욱 균형 잡히고 다양하며 회복력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조정에는 지속 가능성, 기술 중심 부문,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대한 미묘한 접근 방식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협력의 변화를 보여준다.

4) 무역정책 및 규제 변화

코로나19 전후 한국과 중국의 정치·정책 환경 변화는 세계 경제 위기가 국가 전략, 특히 대외 무역정책과 경제규제 영역에서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사례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글로벌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며, 특히 중국과의 강력한 국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한국을 세계 시장,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반대로, 중국은 야심에 찬 일대일로 구상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기술 발전과 세계 무역 영향력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적 힘을 확장하는 국가적 사업에 착수했다. 이 계획은 중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내에서 중국의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출현은 양국의 우선순위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평가를 촉발시켰다. 한국의 즉각적인 대응은 보건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영

향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공급망 관리 및 무역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공급망 차질과 경제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다른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활성화해야 했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추세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및 녹색 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엄격한 공중 보건 조치와 경제안정을 위한 부양 노력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번 위기는 특히 중요한 첨단 기술 부문에서 중국의 기술적 자립을 향한 추진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국내 혁신과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 틀을 재편했다. 이러한 전환에는 첨단 기술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 및 무역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진화하는 세계 무역 환경과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한국과 중국은 새로운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 전략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왔다.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회복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은 경제 다각화와 AI,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등 신흥 분야의 혁신 육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5G, AI, 녹색 기술과 같은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위해 노력하면서 기술 패권을 확고히 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무역의 복잡성과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전개되었다.

종합적으로, 대외 무역정책과 경제규제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 근본적인 재편성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과제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민첩성과 적응성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더 큰 경제적 회복력, 기술적 독립성, 그리고 국제 무역과 외교에 대한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향한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들이 국내 이익 보호와 복잡한 국제 상호의존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세계 경제의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글로벌 도전과 기회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역동적이고 대응적인 적응을 특징으로 하

는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표3-3> 코로나19 전후 한·중 무역구조의 변화

분류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무역 역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흑자와 긴밀한 무역관계 유지 -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기술 수출. - 기술 무역을 위해 서로 상호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의 중단. - 한국은 2023년 중국과의 무역적자 경험
투자 동반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제조, 기술 및 인프라에 중점. -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투자를 다각화 - 중국은 선진 부문에 대한 국내 투자 증가
가치사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가치사슬. - 한국은 첨단 부품을 공급하고, 중국은 광대한 시장과 생산기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의존의 취약성이 노출 - 공급망의 다양화.
무역정책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성장과 글로벌 무역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 - 수출을 강조하는 강력한 무역 동반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보건 위기관리, 공급원 다각화, 디지털/녹색 경제부문 강조 - 중국은 기술 자립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 및 무역정책을 채택하며, 국내 혁신에 중점

자료: 연구자 정리

4. 한·중 무역구조의 새로운 동향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무역 데이터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표3-4>을 보면, 한국에서는 반도체(28.5%에서 32.1%로 증가), 디스플레이(11.1%에서 11.2%) 등 첨단 품목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해 더 첨단화되고 기술집약적인 부문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자동차, 기계 등 중간재 수출 비중도 감소해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3-4> 한국의 수출 품목 비중

품목	2019년	2020년	2021년
반도체	28.5%	31.6%	32.1%
디스플레이	11.1%	11.5%	11.2%
자동차	8.9%	9.3%	8.4%
기계류	9.0%	8.7%	8.6%
석유화학	7.0%	6.6%	6.4%
철강	3.9%	3.7%	3.5%
섬유	2.8%	2.6%	2.5%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한국무역통계" 2022.

<표3-5>을 보면, 중국은 소비재(19.0%에서 22.5%)와 첨단 산업 제품(13.8%에서 17.8%)의 수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원자재 공급업체로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이 진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재료 및 중간재(44.0%에서 37.1%로 감소)뿐만 아니라 더욱 정교한 완제품도 포함된다. 양국의 이러한 변화는 변화하는 경제 전략과 시장 수요에 따라 기술적으로 진보된 부가가치 상품을 향한 세계 무역의 광범위한 추세를 강조한다.

<표3-5> 중국의 수출 품목 비중

품목	2019년	2020년	2021년
소비재	19.0%	20.7%	22.5%
첨단 산업 제품	13.8%	15.7%	17.8%
중간재	44.0%	40.7%	37.1%
원자재	23.2%	22.9%	22.6%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022년 중국무역통계" 2022.

한국과 중국 간 무역구조의 진화는 세계화, 기술 발전,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 더 광범위한 경제동향을 강조한다. 이는 또한 국가들이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역량 강화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는 세계 무역의 역학 변화를 반영한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이는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전통적인 제조 및 원자재에서 더 정교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경제교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한·중 무역구조를 포함한 글로벌 무역 역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국 간 무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소비재, 첨단 산업 제품, 자본재, 서비스 쪽으로의 전환은 양국의 경제적 상호작용과 우선순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나타낸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거래 증가는 더욱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제품으로의 이동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 혁신 및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의 발전하는 산업 역량과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더 정교하고 지식 집약적인 생산으로의 전환을 반영한다. 이는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상호 인식하여 전자, 기계,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 더 협력적이고 공생적인 관계를 끌어낸다.

무역 포트폴리오에서 소비재 및 첨단 산업 제품의 증가는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와 기술 발전을 강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기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스마트폰, 가전제품, 스마트가전 등 최신 기술 동향과 소비자 선호도에 부합하는 상품의 생산과 교환에 집중하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 왔다.

자본재 및 서비스 무역의 증가는 더 깊은 수준의 경제적 통합과 상호의존성을 반영한다. 기계 및 장비와 같은 자본재는 다른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필수적이며, 이는 서로 얽힌 경제적 관계를 나타낸다. 서비스,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성장은 경제활동의 다양화와 더 서비스 지향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및 여가 패턴 변화로 인해 더욱 두드러진 금융, IT,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전문 서비스 등의 부문이 포함된다.

무역구조의 변화는 산업협력과 기술 교류 강화의 분명한 신호이다. 양국이 혁신과 고부가가치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구, 기술 개발, 모범 사례 공유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각 국가의 기술적 강점과 시장 기회를 활

용하는 합작 투자, 연구 협력, 교환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코로나19는 한·중 무역 패턴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협력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경제관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고부가가치 제품, 소비재, 첨단 산업 제품, 자본재 및 서비스를 향한 이러한 발전은 양국의 미래 성장, 혁신 및 경제적 탄력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은 몇 가지 주요 특징을 보인다. 첫째, 경제 및 무역 협력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수교 이후 양국은 다양한 경제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이는 무역 및 투자의 다각화로 이어졌다. 둘째, 무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직접 무역의 확대와 함께 양국 간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진 것을 반영한다. 셋째, 주요 상품 무역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양국이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무역이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경제 협력의 영역이 상품 무역을 넘어 서비스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⁸¹⁾

1992년 8월 공식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지난 30년 동안 무역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무역 협력 분야를 심화시켰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 투자는 무역의 주요 통로가 되었으며,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모델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은 1992년 이후 30년 연속으로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흑자는 해마다 커졌다. 대중 무역은 한국의 주요 무역흑자 원천이었다. 중국은 농산물,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수출 대부분이 저가의 노동집약적 제품이 되었다. 반면, 한국은 주로 전자부품, 광학 및 의료 기기, 자동차부품, 전기기계 제품 등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다. 이러한 수출입 상품 구조의 차이는 한·중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⁸²⁾

81) 張爽, “中韓經貿關係30年：成就、挑戰與展望.” 2022, pp.2.

82) 木財貝, “中韓經濟貿易發展過程有哪些特征.”, 2022, pp.1

최근에는 한·중 무역구조에서 질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중 무역의 구조는 품목별, 가공 단계별, 기술 수준별로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철강과 합성수지에서 IT 제품으로 변화했으며, 수입 품목도 식물성 물질과 원유에서 IT 제품과 철강으로 바뀌었다. 또한, 가공 단계별로는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크며, 최종재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중국 수입에서는 1차 산품의 비중 감소, 중간재의 절반 수준 유지, 최종재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기술 수준별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저위에서 중고위 및 고위 기술로 재편되고 있으며, 수입도 저위 기술에서 중고위 기술로 변화하고 있지만 중저위 기술이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중 무역은 수교 초기 단순 경공업 및 중화학 위주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한·중 무역구조는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를 가진 고부가가치의 핵심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함으로써 한국의 주력 산업이 성장하는 동시에 중국도 산업 고도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상생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⁸³⁾

한·중 무역의 급속한 발전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동결 상태에서 간접무역으로의 전환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양국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역을 시작했다. 두 번째 단계는 간접무역에서 직접 무역으로의 발전이다. 이때 양국 간의 직접적인 무역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단계는 직접 무역에서 급속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보였다. 이 단계에서 한·중 무역은 크게 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액의 급속한 성장과 한·중 제품 구조의 비대칭이 나타났다. 한·중 무역의 주요 문제는 불균형 심화, 무역 갈등 심화, 양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무역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⁸⁴⁾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 통합,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산업 기술 집약화가 가속화되면서 한·중 양자 무역은 몇 가지 새로운 특성을 보여줬다.

첫째, 한·중 양국 무역의 발전 추세는 강하면서도 변동성이 크다. 양국 간 무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정책에 쉽게 영향을 받아 안정성이 낮

83) 전보희, 조의운,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2021.

84) 박석재, “중·한 무역의 발전 과정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중경제문화연구 2, 2014, pp.197~214.

고 위험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특히 한국의 수출은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둘째, 한·중 무역 불균형이 뚜렷하다. 이는 주로 중국의 산업 구조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중국의 수출 제품은 경량화되어 경쟁력이 낮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양국 간 무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주요 장애 요인이다. 양국은 기술 교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한·중 무역과 경제 협력 관계의 기반은 불안정하고 견고하지 않다. 양국 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같은 외교적 이슈는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더욱 민감한 문제다.

넷째, 경제적 불균형과 산업 경쟁력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산업 구조와 경쟁력 차이는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여 한·중 경제 협력의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다섯째,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구조는 반도체 소자나 컴퓨터 통신 장비와 같은 기술집약적인 제품이다. 반면 중국은 주로 노동집약적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외국 자본 기업은 중국에서 고급 기술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구조를 기술집약적인 측면에서 개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국내 산업 구조 전환과 자체 연구 신흥 기술의 지연은 국제 시장에서 한국 수출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방해하고 있다.⁸⁵⁾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 발전 경험, 자본, 생산 기술을, 중국은 거대한 시장, 인재, 과학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성은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⁸⁶⁾

IV. 한·중 GVC의 재편

85) 유평, "한·중 경제무역 협력과 자유무역지구의 연구." 배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p.26~27.

86) 하명, "한·중 무역구조의 특징과 품목별 경쟁력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46~48.

1. GVC의 변화

GVC는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분쟁, 공급망 위기 등으로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GVC 내에서 기업과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이 변화한다. 이번 개편의 주요 특징은 지역화, 고도화, 다양화 등이다. 지역화는 국가가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인근 국가와의 무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중단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세계 무역량이 5.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역내 무역이 3.5% 증가하고, 한국의 GVC 참여국 수가 2019년 130개국에서 2022년 110개국으로 감소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GVC의 정교화 첨단 기술과 디지털화에 힘입어 체인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졌다. 이는 GVC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의 점유율이 2021년 40%(2010년 대비 10% 증가)로 증가하고 한국의 제조업 GVC 참여율은 2010년 59.2%에서 2022년 66.2%로 증가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다각화로 인해 기업은 다양한 국가와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GVC에서 신흥국의 비중은 50%까지 증가했다. 2022년에는 2010년 대비 10% 증가하고,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GVC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GVC 개편은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시한다.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는 GVC 변화에 적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한·중 GVC 협력 현황과 전망

1) 코로나19 이전의 한·중 가치사슬 현황

코로나19 이전에는 GVC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두 나라 특유의 경제적 강점과 전략적 초점을 반영해 뚜렷하게 구분됐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고

부가가치 제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들 산업은 첨단 기술과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정교한 생산에 대한 이러한 전략적 초점으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GVC 참여가 2010년 59.2%에서 2020년 67.4%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접근 방식에는 상당한 양의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이후 생산에 사용되었다. 첨단 제조 공정.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 우위와 혁신이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GVC의 상위 계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반면 중국은 저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중국은 낮은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문은 일반적으로 덜 복잡한 노동력과 단순한 기술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주로 중간재의 대량 생산에 중점을 둔다. 이 전략으로 인해 중국의 제조업 GVC 참여율은 2010년 47.5%에서 2020년 58.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집중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세계의 주요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글로벌 공급망, 특히 비용 효율성과 생산 규모가 주요 경쟁 요소인 제조 부문에서 그렇다.

한국과 중국의 대외 무역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한국의 수출 규모는 약 2,406억4000만 달러, 수입은 약 2,298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1.0%, 9.0% 급감하였다. 그중 자동차 또는 부품, 광물 연료 등의 수출이 큰 영향을 받아 수출액이 27%, 35.7% 감소하였다.⁸⁷⁾ 중국의 경우 같은 기간 상품 무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10987 억 5,000만 달러와 9,309억 5,000만 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6.2%, 6.4% 감소하였다.⁸⁸⁾ 이 영향으로 한·중 양국 무역이 크게 변동이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무역액은 지난해보다 5.8% 감소하였다. 이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보다 5.0%(521억7,000만 달러) 감소하였고, 광물 연료, 철강, 구리, 제품 등 값싼 금속류 수출은 지난해보다 17.0%, 27.0%, 29.7% 감소했으며, 전기기계장비 및 부품 수출도 지난해보다 11.2% 감소했으며,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6.1%(794억 달러) 감소했으며, 차량이나 부품, 유기화학품 등 산업은 큰 충격을 받아 수출액이 41.0%,

87) 한국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023. (<https://unipass.customs.go.kr/ets/>).

88)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2019年統計月報." (<http://www.customs.gov.cn>).

35.4% 크게 급감하였다.⁸⁹⁾코로나19가 상시화되고 세계 경제가 침체된 큰 환경에서 한·중 양국 무역의 약한 성장은 일정 기간 지속되어 양국 상품 무역의 성장률이 계속 둔화될 것이다. 실제로 2011년 한·중 상품 교역은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1~2019년 한·중 양국 교역 증가율은 평균 약 3.0%로 2001~2010년 21.0%에 달하였다.⁹⁰⁾

그러나 코로나19의 시작은 GVC 내부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한국은 코로나19로 노출된 취약성을 인식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자국을 중심으로 한 GVC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에는 반도체, 제약,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해외 생산기지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일 시장이나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경제회복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도 국내 역량을 중심으로 GVC를 더욱 강화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신흥 시장으로 GVC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포함된다. 중국의 전략은 저부가가치 제조 공정에서 더 정교한 제조 공정으로 이동하여 가치사슬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다.

2)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가치사슬의 변화

(1)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2020년 1월 19일, 한국은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과 심리적 불안이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한국의 2020년 GDP는 전년 대비 -0.9% 마이너스 성장하였다. 하지만 2022년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실질 GDP는 2,056,530.2달러로 전년 대비 4.0%(2020년 기준환율: 1,933,152.4달러) 성

89) 한국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ets/>)

90) 한국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ets/>

장해 2010년 6.8%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2021년 1인당 실질 GNI도 크게 증가하였다. 달러 기준은 35,168달러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다.

<그림4-1> 국내 총생산 증가율

(단위:%)



자료: 한국은행

<표4-1>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국민총소득 변화

(단위:달러)

연도	GNI	비중
2019	32,204.4	-1,359.
2020	31,880.6	-323.8
2021	35,168.0	3,287.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2022.

2020년 연간 무역흑자는 448억 7,000만 달러로 2019년보다 60억 달러 증가하

였다. 이 중 수출은 5,12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수입은 4,676억 3,000만 달러로 7.1% 감소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2021년 한국의 수출실적은 6,4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8%, 수입은 6,1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5% 증가하였다.

<표4-2>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수출입 변화

(단위:달러)

연도	수입	수출	무역수지
2019	5,033	5,422	389
2020	4,676	5,125	449
2021	6,150	6,445	29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2022.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충격도 노동 공급의 감소세를 보이지만 한국은 감염, 격리, 돌봄노동 증가 등으로 노동 공급의 큰 폭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2분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만7,000명 감소했고, 계절조정 취업률은 59.9%로 2019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2020년 2분기 62.7%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경기 후행적인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활동 참가율이 위기 시작 이후 점차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급격한 감소는 감염병 확산과 방역 활동이 노동 공급을 급격히 위축시켰음을 나타낸다.

2020년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감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기, 소비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위기, 그리고 심각한 고용 충격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전시상황"으로 상황을 특징지으며, 비상 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0년, 정부는 총 네 차례의 추경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 금융지원 대책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대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을 포괄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한국판 뉴딜'이라는 미래 경제 전략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디지털과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것으로, 고용 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뉴딜은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 환경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산업을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치료제 개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비대면 K-방역 육성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및 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대책은 글로벌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 정확하고 빠른 코로나19 진단키트, 생활치료센터 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방역 능력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코로나19 외교로 이어졌으며, 여러 국가가 한국의 방역정책과 기술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책과 인프라, 인사행정 등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

(2)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현재 중국의 경제 발전은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산업의 수급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공급체인 중단, 소비자 수요 감소, 투자 위험 증가, 고용 압력 증가 및 국제 무역 장애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는 중국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에는 공급체인의 중단, 소비자 수요의 감소, 투자 위험의 증가, 고용 압력의 증가, 그리고 국제 무역의 장애가 포함된다.

첫째, 코로나19 대유행은 중국의 공급망을 크게 혼란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고, 투자 위험이 증가했으며, 고용 압력이 강화되었다. 이는 국제 무역 장벽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혼란은 단기적인 경제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및 음료, 엔터테인먼트, 숙박, 관광, 기타 서비스 산업 등에서 소비자 지출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수요도 감소했다. 2020년 1분기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7.3% 감소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고정 자본 투자도 같은 기간 동안 16.1% 감소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최저치이다.

둘째, 코로나19는 수출과 수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의 상품 무역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2%로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 증가율 0.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두드러졌으며, 수입 역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원자재, 중간재, 소비재 등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 이러한 무역 위축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여러 국가의 제한 조치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세계 경제에 긴장감을 더했다.

셋째, 코로나19의 파급 효과는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2020년 1분기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60.7%로, 지난해보다 5.6%p 증가했다. 이는 거시경제적 레버리지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 가격 거품의 위험이 커졌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책 시행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낳고 경제에 대한 하향 압력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중국 정부와 기업들에 새로운 도전과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다양한 재정 정책과 금융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대응 조치들은 경제활성화, 기업 지원, 고용 유지 및 소비자 신뢰 회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은 몇 가지 주요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는 세금 및 수수료 인하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켰다.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 정책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한 지원책으로 작용했다.

둘째, 정부는 재정 지출을 가속화하고 실질적인 자금을 제공하여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자금은 코로나19 퇴치 노력과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 사용되었다. 피해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 제공을 통해 기업의 운영 자금난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화를 도모했다.

셋째, 중국 정부는 온라인 판매와 서비스 증진을 통해 소비 진작을 장려했다. 이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정부는 작업과 생산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기업과 직원들에 필요한 코로나19 예방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다.

넷째,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이자율과 지급준비율을 낮췄다. 이 조치는 금융기관이 기업과 개인에 더 쉽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은행들에 상환 유예와 같은 관대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특히 주택이나 소비자 대출 분야에서 중요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트럭 운전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 등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 경제의 안정과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탄력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시장 신뢰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3. 한·중 GVC 협력의 도전과 기회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연계성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이는 양국이 서로의 중요한 무역 동반자로 자리 잡은 결과이다. 이러한 연계성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있으며, 특히 제조업, 기술,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단순한 상품 교환을 넘어서 공급망, 기술 협력, 그리고 투자 관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협력 체계로 발전했다. 이러한 연계성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GVC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중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고효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더 넓은 세계 경제맥락에서 볼 때, 무역 및 투자의 다변화, 경쟁력 강화,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한·중 간 GVC 협력은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국제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 도전요인의 등장

(1) 기술 경쟁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은 전자, 통신, 반도체 등의 고급 기술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이는 GVC에서 양국의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만든다. 한국은 오랜 기간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왔다. 이에 반해, 중국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어, 기술적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양국 간의 이러한 기술 경쟁은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중국의 SMI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의 화웨이는 한국의 SK 하이닉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이 자국의 기술적 강점을 활용하며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동시에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 재편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반영한다.

한편, 한국은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은 전자제품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5G,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경쟁은 양국의 경제적 협력과 GVC에서의 역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 협력과 경쟁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이 자국의 기술 개발을 우선시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복잡한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은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경제적 협력과 GVC에서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인이다.

(2) 지정학적 특수성

한·중 지정학적 역학은 무역정책, 공급망 안정성, 양국간 비즈니스 관계에 영향을 미쳐 글로벌 가치사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국제경제 협력과 시장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GVC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미·중 무역 전쟁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 공급에 차질을 겪었다. 이러한 공급망 중단은 생산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⁹¹⁾

중국과 대만 간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거나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특정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 내 생산 시설 확장 계획을 보류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다.⁹²⁾ 미·중 기술 경쟁으로 인한 제재와 규제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끼쳤으며, 기술 개발 및 혁신 활동에 장애가 되었다.⁹³⁾ 미·중 간 기술 경쟁은 한·중 양국 기업들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정치적 긴장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진척이 더디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연은 양국 간 무역 협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양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 및 확장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⁹⁴⁾

이러한 긴장과 그로 인한 도전들은 한·중 양국이 GVC 내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중대한 장애를 제공한다. 이를 극복하고 GVC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정치적 소통 강화, 경제 협력 확대, 그리고 다

91) 朱福林. "中美貨物貿易全球格局演變與中美貿易戰的內在邏輯." 上海經濟研究 7, 2019, pp.102~114.

92) 陳智明. "兩岸關係惡化對台灣經濟, 政治與軍事的影響." 發展與前瞻學報 36, 2022, pp.3~27.

93) 李祺祥, 遊小珺, 韋素瓊. "基於事件數據分析法的兩岸關係測度及影響因素研究." 世界地理研究 31.3, 2022, pp.514.

94) 李鑫, 魏姍. "數字貿易便利化發展的國際趨勢和中國實踐." 經濟學家 1.8, 2022, pp.77~85.

자간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⁹⁵⁾ 정치적 소통 강화는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제 협력 확대는 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통해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자간 협력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기구를 통해 세계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가치사슬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⁹⁶⁾ 이러한 노력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세계 경제의 복잡성 속에서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3)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문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은 현재 한·중 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중 가치사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엄격한 환경 기준을 도입하면, 이는 제조 및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양국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다.⁹⁷⁾ 재생 가능 에너지 소스로의 전환은 초기에는 높은 투자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전통적인 산업과 기술에 대한 대체가 필요하며, 이는 일자리 변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⁹⁸⁾ 이러한 과제들은 한·중 양국이 환경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한·중 양국은 모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⁹⁹⁾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제조 및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95) 구성철. "한중수교 30 주년: 한중관계 회고와 그 미래." 아시아연구 25.1, 2022, pp.23~41.

96) 張弛. "韓國對中美戰略博弈的認知, 因應與中韓關係走向." 國際問題研究 3, 2022.

97) 陳向陽. "中韓建交 30 周年: 務實性合作與結構性矛盾." 現代國際關係, 2022.

98) 呂春燕. "拜登強化美韓同盟及對中韓關係影響." 和平與發展, 2022.

99) 張玉環. "新時代中國國際經濟合作理念探析." International Studies/Guoji Wenti Yanjiu 1, 2023.

탈피해,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초기에는 높은 투자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¹⁰⁰⁾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초기에는 높은 투자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¹⁰¹⁾

한·중 양국은 모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수소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초기에는 높은 투자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산업과 기술에 대한 대체가 발생하여 일자리 변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¹⁰²⁾

이러한 사례들은 한·중 양국이 환경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보여준다. 양국은 이러한 도전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기회의 탐색

(1)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의 부상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는 한·중 GVC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기술, 혁신, 시장 통찰력 분야에서 각자의 강점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한국 기업이 광대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직접적인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예를 들

100) 서훈. 한국과 중국의 ESG 정책 동향과 IT 기업의 ESG 활동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01) 이상림, 안지영, 허예진, 양연빈, 이성규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지원정책과 한중협력방안." 중국종합연구 2022, pp.1~174.

102) 서훈. 한국과 중국의 ESG 정책 동향과 IT 기업의 ESG 활동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어, 한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광범위한 도달 범위와 현지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를 활용할 수 있다.¹⁰³⁾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전통적인 진입 장벽을 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비자 선호도와 시장 동향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¹⁰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이러한 입지를 통해 한국 기업은 현지 취향과 수요에 더 잘 부합하도록 제품 제공 및 마케팅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는 GVC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술과 서비스의 공동 개발을 촉진한다. AI 전문 한국 기술 기업은 중국 물류 기업과 협력하여 공급사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 AI 전문 지식과 중국 물류 네트워크를 통합함으로써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재고 수요를 예측하며 공급망 중단을 관리하는 정교한 AI 기반 물류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¹⁰⁵⁾ 이러한 협력은 관련 기업에 이익이 되며, GVC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탄력성을 향상시킨다.

더욱이,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동반자 관계는 디지털 경제분야에서 한·중 협력의 또 다른 핵심 측면이다. 전자상거래, 데이터 보안, AI 윤리에 대한 표준 설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양국은 더 원활한 상호 운용성과 국경을 넘어 더욱 안전하고 윤리적인 기술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더 원활하고 안전한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육성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혜택을 주는 데 매우 중요하다.¹⁰⁶⁾

본질적으로,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는 한국과 중국이 GVC에서 상호 입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중국의 광대한 시장 및 제조 역량과 결합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경쟁력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더욱 상호 연결되고 강력한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 기여한다.

103) 박지원.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현황과 시사점: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중심으로." KJET 산업경제, 12월호 산업연구원, 2019.

104) 王含韵. "新发展格局下中韩自贸区数字贸易的策略研究." Business and Globalization 10 2022, pp.17.

105) 劉宇, 常琳玥, 吳佳遠, 王欣蕾, 李亞彩. "中韓建交三十周年貿易結構變化與發展趨勢分析.", 2023.

106) Choi, W.. "Korea-China Digital Cooperation: Preparing for the Next Step." KIEP Research Paper, KIEP Opinions 241, 2022.

(2) 공급망 다변화와 지역 협력의 강화

공급망 다각화와 지역 협력 강화는 한·중 GVC 협력에 큰 영향을 미쳐 회복력과 효율성, 경제 성장을 높인다. 공급망을 다각화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기업은 단일 공급원이나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고 지정학적 긴장이나 전염병과 같은 글로벌 혼란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 전략에는 다양한 지역에 걸쳐 소싱 및 제조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취약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중국과 다른 아세안 국가의 공급업체를 모두 포함하도록 부품 소싱을 다양화한다면 비용, 품질, 혁신 등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동시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구상을 통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면 무역을 촉진하고 관세를 낮추며 회원국 간 규정을 조화시켜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협력 강화 환경은 더욱 상호 연결되고 견고한 공급망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한국과 중국은 기술, 제조 및 시장 접근 분야에서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더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GVC를 육성할 수 있다.

공급망 다각화와 지역 협력 강화가 한·중 GVC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다른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전자 제조업체들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의 부품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중국의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양국 기업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공급망 다각화와 지역 협력은 한·중 경제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지역 경제생태계에 기여한다. 공급망 다각화와 지역 협력 강화는 한·중 GVC 협력의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양국은 더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GVC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3) 기술 혁신과 공동 연구개발(R&D)의 확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혁신과 기술력으로 잘 알려져 있고, 중국은 AI와 IoT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 노력은 획기적인 기술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중국 AI 기업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소비자 행동과 선호도를 예측하고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며 매출을 높이는 고급 맞춤형 마케팅 도구를 개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중국 IoT 기업 간의 협력은 한국의 자동차 전문 기술과 중국의 IoT 발전을 결합하여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솔루션이 탄생한다.

디지털 경제분야에서 한·중 간 기술 혁신과 공동 연구개발(R&D)의 확대는 양국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위한 중요한 동인이다. 양국이 상당한 강점을 가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분야에서는 협력적인 노력이 혁신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중국 AI 기업의 동반자 관계를 예로 들면, 첨단 AI 알고리즘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통합하면 온라인 쇼핑 경험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협업은 AI를 활용하여 소비자 행동 및 선호도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교하고 개인화된 마케팅 도구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상품 추천의 정확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더 목표가 분명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쇼핑 경험이 향상되고 기업의 매출 성장이 촉진된다.

마찬가지로,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중국 IoT 기업 간의 협력은 한국의 자동차 엔지니어링 우수성과 중국의 급성장하는 IoT 역량의 강력한 결합을 나타낸다. 이 동반자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분야인 자율주행차 기술의 개발을 크게 가속화할 수 있다. 자원과 전문 지식을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R&D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모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디지털 실크로드란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선진 정보 기술에 의존하여 회원국의 경제 협력, 인문 교류 등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 발전과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 구상을 말한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디지털 실크로드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코로나19 기간에 제한된 인력 이동과 실물 경제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로 전환하여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코로나19 기간에 디지털 실크로드 대응 조치에는 주로 디지털 인프라 건설 강화, 디지털 무역 및 투자 촉진 수준 향상, 디지털 인적 교류 촉진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한·중 경제무역 협력에서 작용과 의미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무역 비용을 줄이고 무역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디지털화 수단을 통해 무역 링크와 물류비용을 줄이고 무역 간소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양측의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¹⁰⁷⁾ 한·중 양국 기업의 심층 협력도 촉진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기술을 통해 기업이 더 정밀한 시장 분석 및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양국 기업이 디지털화 분야의 협력 및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디지털 실크로드의 미래 발전 전망은 광범위하다.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미래 전망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많다. 디지털 실크로드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국과 한국은 무역, 투자,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동시에 양자는 혁신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삼자 시장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상호 이익과 상호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 및 공동 R&D 협력 사례는 한국과 중국이 자국의 기술 영역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한다. 한국의 혁신 및 고품질 기술 개발 실적과 중국의 AI, IoT, 대규모 제조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이들 합작 투자는 현재와 미래 시장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최첨단 기술과 솔루션을 창출할 수 있다. 혁신과 R&D에 대한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은 양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국제 협력의

107) 復旦一帶一路及全球治理研究院, “後疫情時代, 數字絲綢之路價值更爲彰顯.”, 2020.

선례를 설정한다.

(4) 중국 ‘이중순환’ 전략

이중순환 전략은 중국 정부가 제안한 경제 발전 전략으로 국내 시장 수요와 대외 개방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고품질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중순환 전략의 핵심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외 이중 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실행은 한·중 경제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중순환 경제는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외 이중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발전 전략을 말한다. 이 전략은 내수 진작을 강화하고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이중순환 경제는 대외 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중순환 경제의 배경에서 중국은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중순환 경제는 외부 개방을 위한 더 많은 기회와 조건을 만들 것이며 동시에 외부 개방은 이중 순환 경제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원동력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국의 중요한 협력 성과이며 이중 순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중 FTA의 주요 내용에는 관세 양허, 시장 접근, 원산지 규칙 등이 포함된다. 한·중 FTA 발효 후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크게 감소하여 양자 무역 및 투자의 증가를 촉진하였다. 또한, 한·중 FTA는 양국 기업에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여 양국 산업의 긴밀한 통합을 촉진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이중순환 경제에서 협력과 경쟁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협력 측면에서 양국은 인프라 건설, 첨단 기술 산업, 환경 보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분야에서 두 나라 모두 기술 혁신 능력과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

라 경쟁에서 양측의 공동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중순환 경제의 배경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심도 있는 시행과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으로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정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기업에 더 넓은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산업체인의 배치를 더욱 최적화하고 산업 간의 상호 보완 및 협력 발전을 실현하며 양국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분야 외에도 양국은 디지털 경제, 신에너지 및 환경 보호와 같은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다원화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4.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 협력 전략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중국과 한국과 같은 주요 경제국의 경제 협력에 많은 도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글로벌 보건 위기 속에서, 한-중 양국의 인력 이동이 제한되면서 경제무역 협력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동시에 새로운 협력 기회도 창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체인의 중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은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체인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고,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 등의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쌍방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 성장 포인트를 제공했다. 코로나19 이후가 도래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전 세계의 공통 목표가 되었고, 한-중 양국은 이를 지키며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고, 경제 발전 및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중 양국이 경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통제되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지키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 목표가 되었다. 다자간 무역 체제는 세계 경제무역 질서의 초석이며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다. 한·중 양국은 중요한 무역 동반자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양대 경제국으로서, 한국과 중국은 공동으로 다자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지역 협력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한·중 간 GVC 협력은 양국 경제 지형의 초석으로서 양국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세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중 양자 교역 규모는 3,622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교역 관계로 자리 잡았다. 이 수치는 무역 규모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협력의 깊이와 폭을 반영한다.

한국과 중국의 GVC 참여율은 각각 17%, 2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참여는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양국이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GVC에 대한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지식이 국경을 넘어 원활하게 흐르고 두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교한 수준의 경제 통합을 나타낸다.

한·중 GVC 협력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이다. 두 나라 모두 이 분야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여 놀라운 강점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한국과 중국은 반도체, 통신, 재생에너지 기술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혁신과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래 기술 동향과 표준을 형성하는 핵심 주제로 자리매김한다.

앞으로 한·중 GVC 협력 전망은 밝으며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력은 계속 확장되어 두 경제 강국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양국이 기술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확장은 기존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형 기술과 혁신 부문을 포괄하여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동반자 관계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 GVC 협력은 첨단 기술 분야로의 확대뿐 아니라 지역화, 다각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도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적응은 양국이 코로나19 기간에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공급망 중단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역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무역 및 생산 기반을 다양화하는 데 점점 더 집중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미래의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 탄력적이고 민첩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협력 관계는 글로벌 무대에서 양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동반자 관계는 한국의 앞선 기술 역량과 혁신을 중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 및 성장하는 기술력과 결합함으로써 양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협력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개발, 생산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 새로운 시장과 소비자 기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은 향후 한·중 GVC 협력의 핵심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세계적 강조가 증가함에 따라 양국은 녹색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신흥 부문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탄탄한 기반과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갖춘 한·중 GVC 협력은 지역은 물론 세계 경제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이 세계 경제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혁신을 주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세계 경제시스템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V.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방안

1.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한·중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정책 제안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첫째, 한·중 경제무역 협력 전략의 핵심은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한 양자 간 협정 강화이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서비스 무역, 투자 등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집중하여 관세 구조를 개정하고,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화와 상호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이는 무역을 더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기업공동협의회, 특히 한·중 경제 협력위원회(CCEC)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포럼에서 양국의 정부와 기업 지도자들은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고, 과제를 해결하며, 중소기업의 요구와 기여를 고려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고안할 수 있다.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문화·교육 교류 프로그램은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문화적 유대를 심화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둘째, R&D 협업을 장려하는 것은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술 이전 및 수입에 대한 보조금, 세금 혜택 등의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정부는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인책은 AI, IoT, 녹색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협력 노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시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셋째, 환경 지속 가능성, 디지털 경제, 서비스 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정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 학술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포함된다.¹⁰⁸⁾ 이러한 분야의 유대 강화는 지속

108) 최진욱. “바이든 정부의 대전략과 한국 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2023.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계의 요구를 충족하며, 서비스 부문 상호 작용을 확대하고, 인프라 연결성을 개선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한·중 양국의 경제 협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부문에 집중하고 현재의 장벽을 해결함으로써 양국은 더욱 통합되고 견고한 경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번 전략적 협력은 한·중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국제 협력과 상호 발전의 선례를 마련해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2. 무역 장벽 해소와 시장 접근성 개선

한·중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양국 경제 협력 발전에 있어 기본이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전략적 조치와 정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첫째, 관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개정 협상은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고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논의 중인 조치에는 통관 절차의 단계를 줄이고 문서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더 빠른 문서 처리, 제품 분류에 대한 공통 표준 채택, 검사 및 인증의 상호 인식을 위한 고급 디지털 플랫폼의 구현이 중요하다.¹⁰⁹⁾ 이러한 조치는 국경 간 무역을 더 원활하고 빠르게 촉진하여 상품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는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중 FTA에는 상표·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양국은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은 더욱더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릴 것이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자동차, 전자, IT 등 핵심 분야에서 분야별 무역 협정을 활

109) Cheongwadae, "Remarks by President Moon Jaein at ROK-U. S. Business Roundtable" 2021.

발히 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 자동차 협정에는 자동차 부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자동차 제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¹¹⁰⁾ 이러한 부문별 협약은 고유한 과제와 장벽을 해결함으로써 중요한 경제부문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한다.

넷째, 무역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이 무역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한·중 FTA에는 무역정책 변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양국 협력 틀을 마련하겠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¹¹¹⁾ 협정의 이러한 측면을 강화하면 무역 규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고 기업이 정책 변화에 적시에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은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경제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 강화된 IPR 보호, 특정 분야별 협약, 무역 규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포함된다.¹¹²⁾ 이러한 조치는 무역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성장과 안정이라는 더 넓은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다.

3.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협력의 강화

디지털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제안된 전략들은 이러한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동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는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시티 구축 등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협력을 포함한다. 5G 네트워크는 빠른 인터넷 속도와 더 나은 연결성을 제공하여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한·중 양국은 2022년 12월에 “한·중 5G 네트워크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5G 네트

110) 안태건. "Covid-19 팬데믹이 한국의 상품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8.4, 2022. pp.187~197.

111) 현대경제연구원.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2020.

112) 전희윤. “미중 패권전쟁에…“한국, 중국 하이테크 수입시장서 1위 대만과 격차 벌어져.” 서울경제, 2022.7.22.(<https://www.sedaily.com/NewsView/268MCGTC5B>).

워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포럼에서 양국이 5G 네트워크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저장과 처리 능력을 강화하며, 스마트시티는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더 나은 시민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기술 협력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각 나라의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전략은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한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공동의 기준과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데이터 침해 및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중 양국은 2023년 2월에 "한·중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는 양국이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법률 및 정책을 조화시키고, 공동의 기준 및 프로토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기술 이전 및 지식 공유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녹색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이전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중 양국은 2022년 11월에 "한·중 인공지능(AI)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는 양국이 AI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AI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이 더 널리 보급되고, 다양한 국가와 기업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¹¹³⁾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은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은 디지털 혁신에 중점을 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리소스 제공, 시장 접근 용이성 증진,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한·중 양국은 2022년 10월에 "한·중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

113) 윤성중. "환경 및 팬데믹 리스크와 무역정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무역정보연구 24.2, 2022. pp.285~302.

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는 양국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동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타트업 투자 및 엑시트(exit)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신생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¹⁴⁾

이러한 전략들은 각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 사회가 더 연결되고, 기술 혁신이 더 폭넓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4. 양국 간 장기적 협력 프로세스 마련

양국 간의 장기적 협력 전략은 두 나라의 상호 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략은 경제, 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양국 관계의 깊이와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적 협력의 측면에서, 양국은 무역과 투자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서로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 감소, 무역 장벽 제거, 무역 협정 체결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 협력을 통해 양국 산업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양국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미래지향적인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교육과 문화교류는 양국 간의 이해와 신뢰 구축에 필수적이다. 학생과 교수 교환 프로그램, 공동 학술 연구, 문화 행사의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 변화, 인권, 국제 보건 안보와 같은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

114) 윤성중. "환경 및 팬데믹 리스크와 무역정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무역정보연구 24.2, 2022. pp.285-302.

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국 간의 장기적 협력 전략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다각적인 협력은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폭넓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각국의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한·중 양국 간 무역 거래도 빈번해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기간 약간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방역 협력, 경제무역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왔다. 세계 주요 경제국 중 하나인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무역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한·중 양국은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산업 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와의 소통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고위급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고위급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양자 무역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방법을 공동으로 논의해야 한다. 두 정상은 정기적으로 회담을 열어 양자 무역 및 산업 협력에 대한 심층 교류를 수행하고 합의에 도달하여 협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의 관련 부서는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무역과 산업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양국은 공동 작업 그룹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양자 무역 및 산업 협력의 특정 문제를 협상하고 시행할 수 있다.

둘째, 산업 및 공급체인 협력을 심화하고 산업체인 공급체인 배치를 개선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 규모가 크며, 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양국은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첨단 기술, 스마트제조, 신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산업 기술 혁신 및 성과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양국은 인프라 건설 및 물류 운송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무역구조를 최적화한다. 한·중 양국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무역을 확대하고

무역의 부가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높여야 한다. 양측은 고급 장비 제조, 신소재, 바이오의약품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한·중 양국은 서비스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양국은 관광, 교육,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무역의 규모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기업이 서로 투자하고 상호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투자 효율성을 높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쌍방은 투자 촉진 활동을 강화하고 투자 정책 자문 및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이 상대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첨단 기술, 스마트제조, 신에너지 등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양국은 주요 프로젝트 건설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산업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다섯째, 인재 양성 및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인재 양성과 협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경제 및 무역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쌍방은 학생들을 상대국에 파견하여 깊이 공부하고 인재 양성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인재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인재 이동 및 공유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한·중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고 무역 자유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양국은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다른 국가 및 지역과 무역 협력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 통합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산업체인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조업, 농업 및 기타 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통합을 촉진하고 양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양국은 교통, 에너지, 통신 및 기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상호 연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 금융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투자 및 자금 조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은 과학기술 혁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점진적인 진정, 한·중 FTA의 지속적인 심화 및 이행, 시장 접근 조건의 지속적인 최적화 및 개선과 같은 요인의 영향으로 더 큰 발전 성과를 달성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는 한·중 무역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였다. 정책·시장·산업·인재 등 여러 관점에서 보면 양국 간의 무

역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업 구조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며 무역 촉진을 개선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여 포스트 전염병 시대의 한·중 무역 기회와 도전에 대응한다. 앞으로 한·중 양국은 협력을 계속 심화하여 무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변화와 그에 따른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변화 장에서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적 현상들, 특히 비대면 경제의 부상과 디지털화의 가속화 등을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활동의 방식을 재정의하고, 글로벌 무역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히 한-중 경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무역 협력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현황과 연결 지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이 장에서는 한-중 양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그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여 협력의 효과와 가능성을 탐색했다.

무역구조와 GVC 장에서는 무역구조와 GVC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 두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과 경제활동의 변화가 어떻게 한-중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의 경제무역 협력과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전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중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는 무역 장벽 해소, 시장 접근성 개선,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협력 강화, 그리고 양국 간 협력의 장기적 전략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로서, 코로나19 이후에 한-중 경제무역 관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의 중요성과 그 변화의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며, 특히 GVC의 재편성과 보호무역주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하이테크 산업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기회를 발견하였고, 이는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강화와 정치적 신뢰 구축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FTA의 강화는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신뢰 구축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더 넓은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하다. 민간 부문 주도의 경제 협력 증진과 규제 협력의 강화 역시 양국 간의 투자와 무역 흐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부상과 디지털화의 가속화가 어떻게 한·중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전통적인 무역과 경제활동의 방식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무역 협력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평가하고, 무역구조와 GVC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 한·중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제안들은 무역 장벽 해소, 시장 접근성 개선,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며,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로서, 코로나19 이후에 한·중 경제무역 관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또한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현실적인 도전과 기회를 탐색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적 도전은 양국에 새로운 협력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고, 이를 통해 산업 구조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와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알 수 있다.

첫째, 2019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중국과 한국 경제도 큰 영향을 받으면서 양국 정부가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국의 인력 이동이 차단되어 경제 협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고 한·중 경제 협력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둘째, 코로나19 기간에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부상은 한·중 경제 협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양국 간의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 등의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한·중 경제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쌍방 기업의 발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 성장 포인트를 가져왔다. 전염병 상황에서 디지털 실�크로드는 계속 확장되어 양자 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협력을 끌어냈다. 한·중 수교 30주년과 중국의 제시하는 '이중 순환' 전략은 한·중 경제 및 무역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가져왔다.

셋째,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세계 경제 협력의 불확실성이 현격히 증가하였고 전염병 충격, GVC 재건, 중미 전략 게임과 같은 여러 요인이 중첩되어 한·중 경제 협력에 도전을 가져왔다. 코로나19 이후에 한·중 협력은 무역 증가율 둔화, 중미 전략 게임의 노출 효과, 대중 협력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부정적인 경향과 같은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며,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코로나19 이후의 한·중 경제무역 협력은 많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양국은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도전에 대응하여 더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한·중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구성철. "한중수교 30 주년: 한중관계 회고와 그 미래." 아시아연구 25.1, 2022.
- 김상만. "코로나 19 팬데믹 (COVID-19 Pandemic)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한 고찰" 무역법무정책 1, 2021.
- 김재홍. "한·중 경제관계 증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 2017.
- 마학삼, 김석태. "코로나19 이후 한국무역 환경 변화 및 한·중 무역 전망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22.2, 2021.
- 박석재. "중·한 무역의 발전 과정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중경제문화연구 2, 2014.
- 박지원.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현황과 시사점: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 12월호 산업연구원, 2019.
- 서흔. 한국과 중국의 ESG 정책 동향과 IT 기업의 ESG 활동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신정승. "한중수교 30 년과 미래 한중관계 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 11.1, 2023.
- 안태건. "Covid-19 팬데믹이 한국의 상품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8.4, 2022.
- 유평. "한·중 경제무역 협력과 자유무역지구의 연구." 배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윤성종. "환경 및 팬데믹 리스크와 무역정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무역정보연구 24.2, 2022.
- 이상림, 안지영, 허예진, 양연빈, 이성규.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지원정책과 한중협력방안." 중국종합연구 2022.
- 정환우. "한·중 경제무역관계 30 년 회고와 전망." 국제. 지역연구, 31.2, 2022.
- 최진욱. "바이든 정부의 대전략과 한국 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2023.
- 하맹. "한·중 무역구조의 특징과 품목별 경쟁력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형진. "국제경쟁력의 문제" 무역법률 16, 1997.

2. 외국 문헌

- 金暎漢. "逆全球化與全球供應鏈崩解的時代以及韓國經濟的未來." 成均中國觀察39, 2022
- 呂春燕. "拜登強化美韓同盟及對中韓關係影響." 和平與發展, 2022.
- 劉宇, 常琳玥, 吳佳遠, 王欣蕾, 李亞彩. "中韓建交三十周年貿易結構變化與發展趨勢分析." , 2023.
- 木財貝. "中韓經濟貿易發展過程有哪些特征." 2022.

- 樊傑, 李丹, “中韓兩國地方政府的合作研究: 以新冠疫情中的合作為中心.”, 2020.
- 劉志彪, 張傑. “從融入全球價值鏈到構建國家價值鏈: 中國產業升級的戰略思考” 學術月刊 9, 2009.
- 李慶四, “後疫情時代命運與共的人類未來.” 2022.
- 李祺祥, 遊小珺, 韋素瓊. “基於事件數據分析法的兩岸關係測度及影響因素研究.” 世界地理研究 31.3, 2022.
- 李准曄, 金洪起. “中韓貿易結構分析.” 中國工業經濟 2, 2002.
- 李鑫, 魏姍. “數字貿易便利化發展的國際趨勢和中國實踐.” 經濟學家 1.8, 2022.
- 謝世清, 何彬. “國際供應鏈金融三種典型模式分析.” 經濟理論與經濟管理 4, 2013.
- 徐秀軍. “今天的中國是緊密聯系世界的中國.” 2023.
- 楊翠紅, 田開蘭, 高翔, 張俊榮. “全球價值鏈研究綜述及前景展望” 系統工程理論與實踐 40.8, 2020.
- 餘道先, 劉海雲. “我國服務貿易結構與貿易競爭力的實證分析.” 國際貿易問題 10, 2008.
- 吳友群, 盧懷鑫, 王立勇. “數字化對製造業全球價值鏈競爭力的影響——來自中國製造業行業的經驗證據.” 科技進步與對策 39.7, 2022.
- 王佳明. “韓國主導產業的技術創新模式研究.” 2023.
- 王嵐. “融入全球價值鏈對中國製造業國際分工地位的影響” 統計研究 5, 2014.
- 王婧. “中國積極推動區域經濟合作新發展.” 2019.
- 王含韻. “新發展格局下中韓自貿區數字貿易的策略研究.” Business and Globalization 10, 2022.
- 張弛. “韓國對中美戰略博弈的認知, 因應與中韓關係走向.” 國際問題研究 3, 2022.
- 張向陽, 朱有為. “基於全球價值鏈視角的產業升級研究” 外國經濟與管理 27.5, 2005.
- 張曉月. “世界經濟增長新空間視角下的“一帶一路.” 國際傳播.” 東嶽論叢 10, 2019.
- 張輝. “全球價值鏈動力機制與產業發展策略.” 中國工業經濟 1, 2006.
- 張輝. “全球價值鏈理論與我國產業發展研究.” 中國工業經濟 5, 2004.
- 陳柳欽. “有關全球價值鏈理論的研究綜述.” 南都學壇: 南陽師範學院人文社會科學學報 29.5, 2009.
- 陳櫻花. “後疫情時代: 變化與重組.” 科技導報 40.9, 2022.
- 陳智明. “兩岸關係惡化對台灣經濟, 政治與軍事的影響.” 發展與前瞻學報 36, 2022.
- 陳向陽. “中韓建交 30 周年: 務實性合作與結構性矛盾.” 現代國際關係, 2022.
- 湯志賢, “RCEP推動韓國全面融入東亞區域經濟一體化.” 2022.
- 胡玥, 王生. “中韓經貿合作面臨的問題, 趨勢與對策.” 經濟縱橫 5, 2019.
- Abbas, Shujaat.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economic impact on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13, 2014.
- Afonso, Óscar, "The impact of international trade on economic growth." Investigação-Trabalhos em Curso 106, 2001.
- Baier, Scott L., and Jeffrey H. Bergstrand. "Do free trade agreements actually

-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1.1, 2007.
- Baldwin, Richard E.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Global Trade*. Routledge, 2017.
- Barbero, Javier, Juan José de Lucio, and Ernesto Rodríguez-Crespo. "Effects of COVID-19 on trade flows: Measuring their impact through government policy responses" *PloS one* 16.10, 2021.
- Behl, A., Sheorey, P., Pal, A., Veetil, A. K. V., & Singh, S. R. "Gamification in E-commerce: A comprehensive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in Organizations (JECO)* 18.2, 2020.
- Bernard, A. B., Jensen, J. B., Redding, S. J., & Schott, P. K. "Global firm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6.2, 2018.
- Chachulski, S., Jennings, M., Katti, S., & Katabi, D. "Trading structure for randomness in wireless opportunistic routing." *ACM SIGCOMM Computer Communication Review* 37.4, 2007.
- Cheongwadae, "Remarks by President Moon Jaein at ROK-U. S. Business Roundtable" 2021.
- Durant, Isabell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rade and development: lessons learned", 2022.
- Gereffi, Gary, John Humphrey, and Timothy Sturgeon. "The governance of global value chai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2.1, 2005.
- Gereffi, Gary. "Global value chains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Antitrust Bulletin* 56.1, 2011.
- Gereffi, Gary. "The organization of buyer-driven global commodity chains: How US retailers shape overseas production network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1994.
- Gereffi, Gary. "Global value chains and development: Redefining the contours of 21st century capit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 Helpman, Elhan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rade structur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2.3, 1985.
- Huang, Xianhai, Sheng Xu, and Jing Lu. "Trade Liberalisation and Labour Income Share Variation: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eviation from the Stolper-Samuelson Theorem. " *The World Economy* 34.7, 2011.
- Jiang, Dayang, Xinyu Wang, and Rui Zhao. "Analysis on the economic recovery in the post-COVID19 era: evidence from China. " *Frontiers in Public Health* 9. 2022.
- Kali, Raja, Fabio Méndez, and Javier Reyes.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16.2, 2007.

- Kentor, Jeffrey. "The long term effects of globalization on income inequality,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Social Problems* 48.4, 2001.
- Krugman, Paul R. "Industri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Hand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2, 1989.
- Lencucha, Raphael, and Anne Marie Thow. "Intersectoral policy on industries that produce unhealthy commodities: governing in a new era of the global economy?." *BMJ Global Health* 5.8, 2020.
- Melitz, Marc J.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econometrica* 71.6, 2003.
- Negishi, Takashi, and Takashi Negishi. "Heckscher-Ohlin Theory (1)."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Trade Theory*, 2001.
- Rodrik, Dani. "Why do more open economies have bigger governme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5, 1998.
- Rodrik, Dani. "What's so special about China's exports?." *China & World Economy*, 14.5, 2006.
- Seretis, Stergios A. and Persefoni V. Tsaliki. "Absolute advantage and international trade: Evidence from four Euro-zone economie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48, 2016.
- Stiglitz, Joseph, and Robert M. Pike.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9.2, 2004.
- Thirlwall, Anthony P. "Trade agreements,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 selective survey." *African Development Review* 12.2, 2000.
- Tinbergen, Jan. "Shaping the world economy; suggestions for a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962.
- Urata, Shujiro. "Globalization and the growth in free trade agreements" *Asia Pacific Review* 9.1, 2002.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orld Trade Report 2021" 2021.
- Xiao, H., Meng, B., Ye, J., & Li, S., "Are global value chains truly global?" *Economic Systems Research* 32.4, 2020.
- Xing, Yuqing. "China and global value chain restructuring" *China Economic Journal* 15.3, 2022.
- Xing, Yuqing. "China and global value chain restructuring." *China Economic Journal* 15.3, 2022.
- Zhang, H., Wang, X., Tang, J., & Guo, Y. "The impact of international rare earth trade competition on global value chain upgrading from the industrial chain perspective" *Ecological Economics* 198, 2022.

3. 보고서/뉴스/온라인 자료

- 전보희, 조의윤,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21.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classification=1&no=2251>)
- 전희윤. “미중 패권전쟁에…“한국, 중국 하이테크 수입시장서 1위 대만과 격차 벌어져.” 서울경제, 2022.7.22.(<https://www.sedaily.com/NewsView/268MCGTC5B>).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7111&cid=42140&categoryId=42140>)
- 조재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171억달러 ‘사상 최대’” 조선일보, 2023.12.19.(<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7/05/SY34EERMMJHLV PZQPMBNFX7R2A/>)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현황과 과제”, 2023년 11월 22일.
- 한국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023. (<https://unipass.customs.go.kr/ets/>).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무역연구원. “한미FTA 10년 평가와 과제.” 2022.
- 한국외교부, “중국개황.”, 2017.
- 현대경제연구원.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2020.
- Choi, W.. "Korea-China Digital Cooperation: Preparing for the Next Step." KIEP Research Paper, KIEP Opinions 241, 2022.
- 跨境电商系统. (https://www.tp-shop.cn/newslist_116.html)
- 觀研天下. “中國RCEP自貿區行業現狀深度調研與投資趨勢研究報告.” 2022.
- 複旦一帶一路及全球治理研究院, “後疫情時代, 數字絲綢之路價值更為彰顯.”, 2020.
- 張爽. “中韓經貿關係30年：成就,挑戰與展望.”2022, p.2.
- 张玉环. "新时代中国国际经济合作理念探析." International Studies/Guoji Wenti Yanjiu 1, 2023.
- 朱福林. "中美货物贸易全球格局演变与中美贸易战的内在逻辑." 上海经济研究 7, 2019, pp.102-114.
- 中經數據, <https://ceidata.cei.cn/>
- 中国可再生能源学会. “《2022年中国可再生能源发展报告》”, 2022.
- 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 “中国与韩国经贸关系发展报告.” 2022.
- 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 “中国与韩国经贸关系发展报告.” 2022.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 “2019年統計月報.”(<http://www.customs.gov.cn>).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and status of economic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fter COVID-19, and explore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the post-COVID era has brought to Korea-China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Korea and China have developed into important trading partners, and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continued to develop even in the changed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Against the background of a sluggish global economy, increasing debt burden, and geopolitical risks in the supply chai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Asian region and the global economy, with the two countries ranking second and tenth, respectively, in the global economy. As a country, we contribute to the prosperity and stability of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the recovery and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The paper studies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rom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to the outbreak of COVID-19, and addresse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acing Korea-China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after COVID-1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advanced significantly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trade volume rapidly increased from \$5 billion in 1992 to \$270 billion in 2018,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es of both countries. However, the outbreak of COVID-19 in 2019 dealt a serious blow to the global economy and trade, and the collapse of the global value chain also affecte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China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n the post-corona era faces several challenges. These include the economic downturn caused by COVID-19, the impact of the China-US strategy game, and the negative perception within Korea about cooperation with China. Despite this situation, Korea and China sought new opportunities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the digital economy and e-commerce fields. In particular, the rise of the online economy during the COVID-19 period has become a new driving force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hina's 'dual circulation' strategy aims to balance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activities, which has provided new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 Korea-China economic trade.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has played a role in promoting the growth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ost-corona era presents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both Kore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should use COVID-19 as an opportunity to deepen economic cooperation and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by promoting optimization and upgrading of industrial structures. In addition, we must enhance the complementarity and synergy of economic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increasing the convenience of trade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emerging fields such as the digital economy. These efforts will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recovery and growth of not only the Korean and Chinese countries, but also the global economy.

Key words: Korea-China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post-corona era, non-face-to-face economy, trade structure, global value chain (GVC)